



초등 기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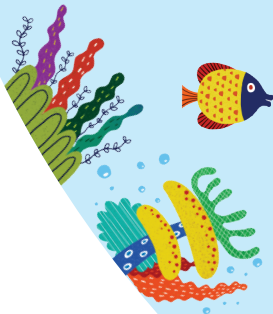
# 만점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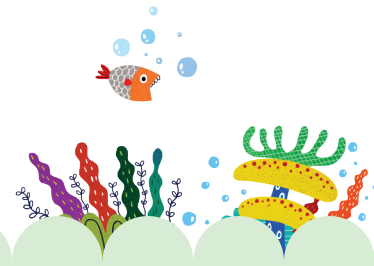
국어

5·1

book **3** 해설책



# 차례



## BOOK 1

### 개념책

1	대화와 공감	3
2	작품을 감상해요	7
3	글을 요약해요	10
4	글쓰기의 과정	13
5	글쓴이의 주장	17
6	토의하여 해결해요	21
7	기행문을 써요	25
8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	28
9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32
10	주인공이 되어	35

## BOOK 2

### 실전책

1	대화와 공감	37
2	작품을 감상해요	38
3	글을 요약해요	39
4	글쓰기의 과정	40
5	글쓴이의 주장	41
6	토의하여 해결해요 /	42
7	기행문을 써요	
8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	43
9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	44
10	주인공이 되어	





1

단원

## 대화와 공감



8~15쪽

### 교과서 내용 학습

01 ⑤ 02 부모님 심부름을 하고 오느라 03 ④ 04 세린  
 05 ③ 06 ⑤ 07 (1)㉠ (2)㉡ (3)㉢ 08 ① 09 ㉤ 기  
 썬 표정을 지으며 신나는 목소리로 말할 것 같다. / 엄지손가  
 락을 높이 들고 활짝 웃으며 말할 것 같다. 10 ①, ③ 11  
 ① 12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한다. 13 ㉥ 책상 위  
 먼지도 닦고, 줄도 반듯하게 맞추었네. 청소를 정말로 잘했구  
 나! 14 ③ 15 ① 16 ④ 17 ㉦ 최지호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도 소홀하지 않고 시간표 당번 역할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18 (1) 뒤 구르기 (2) 방해 19 ④ 20 (2) ○  
 21 ②, ④ 22 ① 23 ⑤ 24 ⑤ 25 ④ 26 (2) ○ 27  
 ② 28 (1) 주인이 아빠 (2) 친절왕 29 ㉧ 서로의 말에 공감  
 하며 대화해야 한다. 30 ④ 31 ㉨ 정야: 유리아, 내가 색칠  
 하는 것 좀 도와줄까? / 유라: 고마워, 정야야. 밑그림을 그리  
 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나 봐. / 정야: 그렇구나. 색칠하는 데  
 시간이 부족할 텐데 내가 도와줄게. / 유라: 고마워. 다음에 네  
 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꼭 도와줄게.

01 태일이는 판생각을 하느라 소희의 말을 듣지 못해서 소  
 희에게 어제 왜 화가 났는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대화의 특성

- 상대를 직접 보면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 잘 듣지 않으면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 표정, 몸짓, 말투에 따라 기분이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의 마음을 살피며 말해야 합니다.

02 은주는 소희에게 부모님 심부름을 하고 오느라 늦었다  
 고 말했습니다.

03 소희는 부모님 심부름 때문에 늦었다는 은주의 말을 들  
 고, 은주의 처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04 소희는 그림 1~2와 같이 화가 났었던 일을 말하고  
 있으므로, 진지한 말투와 굳은 표정으로 말했을 것입니  
 다.

05 태일이는 소희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을 소희의 마음  
 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06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  
 야 상대가 잘 알 수 있습니다.

07 (1)과 같이 기쁠 때는 활짝 웃는 표정과 반가워서 커진  
 목소리가, (2)와 같이 미안할 때는 진지한 표정과 조용  
 한 목소리가, (3)과 같이 오해를 받았을 때는 답답한 표  
 정과 억울해하는 목소리가 어울립니다.

08 표정과 말투를 통해 상대의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  
 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실감 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말이라도 표정이나 말투에 따라  
 말뜻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말을 주고받을 때 표정과 말투의 역할 알아보기

- 말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표정과 말투가 중요한 까닭
  -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실감 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  
 니다.
  - 표정이나 말투에 따라 말뜻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말을 듣는 사람에게 적절한 표정과 말투가 중요한 까닭
  - 상대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  
 니다.

09 칭찬하는 말을 할 때는 신나고 밝은 목소리로 엄지손가  
 락을 높이 들고 활짝 웃으며 기쁜 표정으로 말하는 것  
 이 어울립니다.

#### 채점 기준

칭찬하는 상황에 어울리는 밝은 표정과 목소리, 칭찬에 어울  
 리는 적절한 몸짓을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10 글 1에서는 칭찬의 힘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글 3에

서는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 칭찬은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더 알아보기**

**칭찬이 중요한 까닭**

- 상대의 기분을 좋아지게 합니다.
-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힘을 줍니다.
- 누군가에게 용기를 줍니다.
-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 올바른 습관을 기르고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아지게 만듭니다.
- 칭찬으로 친구와 신뢰와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 일을 성취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2 글 3에서 칭찬은 분명하고 자세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3 청소를 어떻게 잘했는지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을 합니다. 걸레질을 잘했다거나 물건 정리를 잘했다는 등 청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채점 기준**

청소를 어떻게 잘했는지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하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14 진심 어린 칭찬이야말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하였습니다.

15 칭찬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야 하고,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6 친구가 잘하는 것, 친구가 노력하는 것, 친구에게 고마운 것, 친구의 장점을 찾아 칭찬할 수 있습니다.

17 친구가 잘하는 것, 노력하는 것, 친구에게 고마운 것 등을 떠올려 분명하고 자세하게, 결과보다는 과정을,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합니다.

**채점 기준**

친구가 잘하는 것, 노력하는 것, 친구에게 고마운 것 등을 떠올려 분명하고 자세하게, 결과보다는 과정을,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더 알아보기**

**칭찬하는 방법**

-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합니다.

-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합니다.
-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 가능성을 키워 주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칭찬합니다.
- 진실된 마음이 전해지도록 칭찬합니다.
- 보상과 연관 짓지 않습니다.

18 정인이는 체육 시간에 뒤 구르기가 잘 안되어서 모뎀끼리 여러 가지 동작을 꾸밀 때 방해가 될 것 같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19 동욱이는 정인이의 고민을 듣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와 달라고 말하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20 동욱이가 정인이의 고민을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인이가 화를 낸 것입니다.

**더 알아보기**

**「정인이의 고민」에서 정인리와 동욱이가 고민을 말하고 듣는 과정**

[동욱] 정인리의 얼굴 표정을 보고 고민거리가 있는지 물어봄.

[정인] 동욱리에게 고민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음.

[동욱] 정인리에게 고민을 말하라고 재촉함.

[정인] 동욱리에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음.

[동욱] 정인리의 고민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해결 방법을 말함.

[정인] 동욱리가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 방법을 강요해 화를 냄.

21 정인리와 동욱리의 대화를 통해 상대에게 억지로 고민을 말하라고 강요하면 안 되며, 고민을 듣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는 방법**

- 상대에게 고민을 말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 상대가 고민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잘 듣습니다.
-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 상대에게 진심이 전해지도록 노력합니다.

22 주민이 아빠께서는 소방관이시며 지금은 119 구조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3 주민이는 자신의 아빠께서 친절왕이며,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꼭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24 주민이는 아빠께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할머니를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드리느라 영화관에 너무 늦게 들어가서 영화의 뒷부분만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25 민재와 주민이는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받아 주며 이야기했기 때문에 즐겁게 대화한 것입니다.

**더 알아보기**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26 주민이는 아빠께서 항상 남을 돕느라 바쁜 것이 싫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고 하였습니다.

27 민재는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친절한 주민이 아빠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민이가 그런 아빠의 행동을 싫어하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져 주길 바라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28 민재는 주민이도 주민이 아빠와 비슷하며, 자신의 눈에는 주민이도 친절왕이라고 하였습니다.

29 민재와 주민이처럼 서로의 말에 공감하며 대화하면 대화가 즐겁게 이어집니다.

**채점 기준**

서로의 말에 공감하며 대화한다거나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받아주거나 이해한다는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30 친구에게 도와 달라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상황은 그림 4에 대한 설명입니다. ①은 정우의 상황, ②는 시현이의 상황, ③은 정아의 상황, ⑤는 명진이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31 정아와 유라의 상황을 생각하며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말을 씁니다.

**채점 기준**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에 공감하는 대화를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서술형 수행 평가 돋보기**

16쪽

- 1 예 친구의 감정이나 생각에 공감하며 대화해야 한다.
- 2 예 정우야, 정말 고맙다. 너도 같이 상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 3 예 정우가 속상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은 시현이를 축하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시현이는 정우에게 한참 더 배워야 한다며 친구의 속상한 마음도 모르고 잘난 척을 하였다. 같이 공부하여서 다음에 같이 상을 받자고 말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 1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에는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에 공감하며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 2 시현이는 정우의 축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상을 받지 못한 정우를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 3 대화에서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에 잘 공감한 부분을 찾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찾아 상대의 감정이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공감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씁니다.

**채점 기준**

상	대화에서 잘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쓰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고칠지도 바르게 썼으면 만점입니다.
중	대화에서 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썼으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고칠지 바르게 쓰지 못해 아쉬웁니다.
하	대화에서 잘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찾지 못해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 단원 확인 평가

20~21쪽

01 (2) ○ 02 (1) 예 자세하게 (2) 예 과정 (3) 예 가능성  
03 (4) ○ 04 예 년 정말 운동에 소질이 많구나. 앞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05 수민, 예서 06 ② 07 ㉠ 08 ① 09 (1) ○ 10 예  
애들아, 쉬는 시간에 이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한데, 책을 읽는데 너희들 소리 때문에 방해가 돼. 조금만 조용히 이야기해 주면 정말 고맙겠어.

- 01 친구들이 깜짝 생일 축하 잔치를 해 주었을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놀란 표정과 빠른 목소리가 어울립니다. (1)은 미안한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말투입니다.
- 02 칭찬할 때에는 분명하고 자세하게,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며, 가능성을 키워 주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 03 (1), (2), (3)은 두루뭉술하게 칭찬하거나, 결과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4)는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 04 지금의 능력보다 잠재 능력을 보고 가능성을 키워 주는 칭찬하는 말을 씁니다.

### 채점 기준

운동에 소질이 보이니 노력하면 나중에 훌륭한 운동선수가 된 다거나 시합에서 이길 수 있겠다는 내용 등 가능성을 칭찬하는 말을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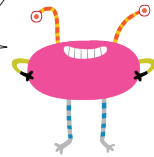
- 05 대화할 때는 상대를 직접 보면서 말을 주고받고, 잘 듣지 않으면 다시 물어봐야 하며, 상대의 마음을 살피며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표정, 몸짓, 말투에 따라 기분이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06 도움이 되는 말이나 몰랐던 것을 깨우쳐 주는 말을 조언이라고 합니다.
- 07 고민을 말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 상대에게 고민을 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 ㉡, ㉢는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는 방법입니다.

- 08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친절하신 주민이 아빠에 대해 민재는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 09 주민이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공감이므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1)과 같이 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와 (3)은 공감하는 말이 아닙니다.
- 10 쉬는 시간이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의 마음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점 기준

친구들의 마음이나 감정을 고려하여 하고 싶은 말을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1 단원에서는  
대화와 공감에 대해  
공부했으니까, 친구에게  
칭찬하거나 조언하는 말을  
한번 해 보자.





## 교과서 내용 학습

24~33쪽

- 01 예 유관순 위인전을 읽어 보았다. /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이다. / 삼일 운동을 다룬 영상에서 본 적이 있다. /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 02 우리글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03 ④ 04 ⑤ 05 ③ 06 (1)○ 07 세이, 태현 08 ④ 09 ③ 10 ④ 11 예 유관순 열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다. / 유관순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12 ③, ⑤ 13 (2)○ (3)○ 14 (1) - (2) - (3) (3) - ① 15 민혁 16 마고 전설 17 ③ 18 ⑤ 19 예 게임 속 세상에서는 수일이가 주인이어서 모든 일을 수일이가 정하지만, 현실 속 세상에서는 수일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끌려 다녀야 한다. 20 ③, ④ 21 ④ 22 (1) 학원 (2) 놀 23 ② 24 ② 25 ④ 26 (3)○ 27 예 나도 동물들이 말을 한다고 상상했던 적이 있다. / 나도 엄마가 내 말을 믿어 주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이 있다. 28 (3)○ 29 ④ 30 ⑤ 31 서하 32 ② 33 (1)○ 34 예 수일이는 덕실이 도움을 받아 가짜 수일이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35 ②, ④, ⑤ 36 ② 37 ② 38 ②, ④ 39 (1) 예 친구가 손을 내밀었다 (2) 예 나만 화해하고 싶은 줄 알았는데 / 마음이 갈라지는 길목에서 / 먼저 손을 내어 주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
- 01 유관순에 관한 위인전을 읽어 본 경험, 유관순에 대해 텔레비전에서 보거나 어른들에게 들었던 내용, 서대문형무소로 현장 체험학습을 갔던 경험 등을 떠올려 봅시다.
- 채점 기준**  
유관순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02 유관순은 방학 동안에는 고향에 내려가 우리글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글을 가르쳤습니다.

- 03 일본은 우리글에는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글을 배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 04 남녀노소가 모두 한 목소리로 독립 만세를 외치는 모습을 보고 독립을 원하는 우리 겨레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유관순도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 05 유관순은 3월 1일에 탑골 공원에서 있었던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했지만, 독립 선언문을 낭독한 것은 아닙니다.
- 06 유관순은 서울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부르다가 학교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닫히자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왔습니다.
- 07 이 글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 있는 경험, 유관순에 대해 알고 있던 경험 등을 떠올리는 것이 알맞습니다.
- 08 아우내 장터에서 했던 유관순의 연설에 그 까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겨레가 불행하게도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 만세 운동을 한 것입니다.
- 09 유관순은 독립 만세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한다는 유관순의 신념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 10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욱 실감 나게 읽을 수 있으며 내용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인물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1 유관순에 대해 감동한 점, 유관순을 통해 깨닫게 된 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씁니다.
- 채점 기준**  
유관순에 대해 감동한 점, 유관순을 통해 깨닫게 된 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12 이 시에는 시 속 말하는 이가 학교에 지각할 뻔한 경험, 춥고 배고팠던 경험, 누군가가 보고 싶었던 경험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 13 1연에서는 학교에 빨리 가고 싶기 때문에, 2연에서는

집에 빨리 가고 싶기 때문에, 3연에서는 그리운 사람을 보고 싶기 때문에 길을 힘껏 잡아당긴다고 하였습니다.

- 14 1연에는 지각할까 봐 조마조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2연에는 춥고 배고파서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3연에는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 15 이 시의 말하는 이처럼 무언가를 잡아당겨 내 곁에 두고 싶었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민혁이는 반대로 오히려 집에 가기 싫다는 생각을 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 16 수일이가 하는 게임은 ‘마고 전설’이라는 게임입니다.
- 17 게임을 시작하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 마을을 만들고, 논밭을 일구어 곡식을 심고, 공장을 세우고, 산에는 성을 쌓아 군사들을 훈련시켜 귀신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 18 게임에서 귀신을 쓰러뜨리며 사람들을 구해 내는 일이 아슬아슬하고 짜릿짜릿하다고 하였습니다.
- 19 게임 속 세상에서 수일이는 모든 일을 수일이가 정하고 수일이 생각대로 사람을 이끌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지만, 현실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끌려 다녀야 합니다.

**채점 기준**

게임 속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현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20 수일리와 강아지 덕실이가 등장합니다.
- 21 수일리는 “내가 돌이켰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 22 수일리는 자신이 하나 더 있으면 하나는 학원에 가고 하나는 마음껏 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23 강아지 덕실이가 말을 하는 바람에 수일리가 깜짝 놀라 엄마를 찾아 그 사실을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 24 덕실이가 말을 한다는 말을 듣고, 엄마는 수일리에게 더위를 먹었냐며 빨리 학원에나 가라며 믿어 주지 않았습니다.

25 엄마께서 덕실이가 말을 한다는 것을 믿지 않은 까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수일리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 26 수일리는 엄마하고 다시는 아무 말도 안 할 거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잘 안 믿어지는데, 엄마가 쉽게 믿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 27 수일리가 겪은 일과 비슷한 경험, 또는 수일리와 비슷한 생각이나 느낌을 가져 본 경험을 떠올려 씁니다.

**채점 기준**

수일리와 비슷한 경험이나 비슷한 생각이나 느낌을 가져 본 경험을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28 (1)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고, (2)는 감상을 묻는 질문이며, (3)은 주인공의 생각이나 느낌을 추론하는 질문입니다.
- 29 덕실이는 공을 차는 것보다 공을 물어뜯는 것이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 30 수일리는 누가 자기 대신 학원에 좀 다녀 줬으면 하는 마음에 자신이 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31 작품 속 세계에서는 강아지와 대화할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강아지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여러 학원에 다니는 것과 집에서 강아지 등의 동물을 키우는 것은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 32 덕실이는 수일리의 손톱을 깎아서 쥐한테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 33 쥐에게 손톱을 먹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일리는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3)은 덕실이의 의견에 해당합니다.
- 34 수일리가 가짜 수일리를 만들 수 있을지 상상하여 이어질 내용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수일리가 가짜 수일리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이어질 이야기를 알맞게 적었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35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읽으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인물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아는 내용과 비교하며 읽을 수 있으며, 작품 읽기의 즐거움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36 봄날에 꽃을 본 경험을 시로 나타내었습니다.

37 꽃은 내가 보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바람과 인사하고 햇살과 인사하며 날마다 내게 말을 걸고 있었고, 떨어질 꽃잎도 지켜 내며 나를 향해 더 많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38 이 시는 꽃과 ‘내’가 친구 같은 정다운 분위기, 자연에 관심이 없던 ‘내’가 스스로 반성하는 분위기입니다.

39 시로 표현하고 싶은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시의 일부분을 바꾸어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시의 일부분을 알맞게 바꾸어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견학을 간 경험, 유관순에 대한 책을 읽었던 경험 등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03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을 읽으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내용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며, 더욱 실감 나게 읽을 수 있고, 인물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글의 내용이나 인물의 마음을 더 쉽게, 깊이 이해할 수 있거나 생생하고 실감 나게 읽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04 ‘출렁출렁’은 길이 움직이며 당겨오는 모습을 표현한 말로, 길을 잡아당겨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05 이 시를 읽을 때에는 이 시의 말하는 이처럼 지각할까 봐 조마조마했던 경험, 춥고 배고팠던 경험,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었던 경험, 누군가가 그리웠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06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읽으려면 내가 겪은 일이나 아는 것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읽고, 작품 속 주인공이 겪는 일과 현실 속에서 내가 겪는 일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읽습니다.

07 작품 속 세계는 현실 세계와 비슷하거나 같은 점도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상해 만든 세계입니다.

08 이 시를 읽으면 꽃을 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 봄날에 예쁘게 핀 꽃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09 내가 꽃을 더 나중에 보아서 미안한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10 꽃을 본 경험, 꽃을 보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던 경험 등을 떠올려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시의 내용이나 시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마음과 관련 있는 경험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단원 확인 평가**

37~38쪽

01 ⑤ 02 (2) ○ 03 예 인물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04 출렁출렁 05 ④ 06 ③, ④ 07 (2) ○ (3) ○ 08 ②, ③ 09 ④ 10 예 가족과 공원을 산책하면서 벚꽃을 본 적이 있다. / 기분이 안 좋은 날 꽃을 보며 기분이 편안해진 적이 있다.

01 유관순은 1920년 열아홉 나이에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볼 수 없었습니다.

02 이 글의 배경인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본 경험, 유관순이 간혀 있던 서대문형무소에



## 교과서 내용 학습

42~46쪽

01 ⑤ 02 ⑤ 03 ③, ④, ⑤ 04 (1) ○ 05 ③ 06 ㉠ 어떤 일을 할 때의 알맞은 방법이나 순서를 알려 주는 글이다. /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는 글이다. / 설명하는 글이다. 등 07 ㉠ 08 ②, ④ 09 ② 10 (3) ○ 11 ㉠ 세계의 탑 / 세계 여러 도시의 유명한 탑 12 ⑤ 13 ② 14 (2) ○ 15 (2) ○ 16 ④ 17 (1) - ② (2) - ① 18 (나) 19 ㉠ 글에서 중요한 내용만을 쉽게 알 수 있다. / 중요한 내용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해 준다. / 많은 내용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 등 20 ③ 21 ⑤ 22 (1) ① (2) ②, ③, ④ (3) ⑤ 23 (1) ○

- 01 설명하는 글에는 백과사전, 사용 설명서, 안내문, 설명문 등이 있습니다. 백과사전을 읽으면 잘 몰랐던 내용이나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02 글 (가)는 새싹 채소를 가꾸는 방법을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 03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생각하며 읽고,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생각해 봅니다.
- 04 글 (나)는 과일 카드 놀이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 05 ⑤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일 카드 놀이'는 마지막까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하였습니다.
- 06 글 (가)는 새싹 채소를 가꾸는 과정을, 글 (나)는 과일 카드 놀이 방법을 알려 주고 있는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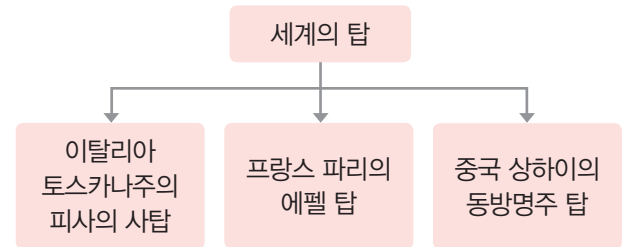
## 채점 기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 주는 글' 혹은 '설명하는 글'이라고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07 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 08 다보탑과 석가탑은 두 탑 모두 통일 신라 시대에 화강암

을 쪼아 만든 석탑이며 불국사 대웅전 앞뜰에 있습니다. 또 둘 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 09 ①에서 다보탑과 석가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로 했고, ②에서 공통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③에서는 두 탑의 차이점이 나와야 하는 순서입니다.
- 10 이 글에서는 다보탑과 석가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11 '세계 여러 도시에 있는 유명한 탑을 알아봅시다.'에서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 알 수 있습니다.
- 12 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는 '피사의 사탑'이 있다는 것입니다.
- 13 에펠 탑의 높이는 324미터입니다. ②는 동방명주 탑의 높이입니다.
- 14 구슬 세 개를 꿰어 놓은 모양으로 생긴 탑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 15 이 글은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하는 '열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16 이 글은 어류의 여러 가지 기관과 그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17 비늘은 어류의 몸을 보호하고, 아가미는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흡수합니다.
- 18 글 (나)는 글 (가)에서 중요한 내용만 간추린 것입니다. 이를 '요약'이라고 합니다.
- 19 글 (나)는 글 (가)의 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글의 중요한 내용만 짧게 줄이면 중요한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 채점 기준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거나 기억할 수 있다고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20 이 글은 직업과 여러 가지 옷 색깔의 관계에 대해서 ‘열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21 직업과 옷 색깔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직업의 종류별로 입는 옷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기를 들어 설명하는 ‘열거’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22 글의 처음 부분에는 설명할 내용을 제시하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설명할 대상의 예를 늘어놓으며 설명하고, 끝 부분에서는 설명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 23 이 글의 내용에 알맞은 질문은 (1)입니다. 이 글은 직업과 옷의 형태가 아닌 옷 색깔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1 친구들에게 설명할 내용을 떠올려 보고, 어떤 구조를 사용하여 설명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 2 주어진 틀에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 3 틀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처음, 가운데, 끝의 구조로 설명하는 글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상	틀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처음, 가운데, 끝이 잘 드러나게 설명하는 글을 썼으면 만점입니다.
중	틀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썼지만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점이 아쉽습니다.
하	틀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문을 쓰지 못했다면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더 알아보기**

**다양한 글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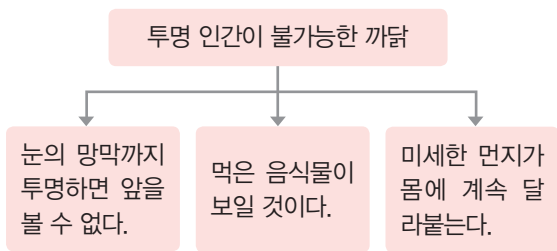
비교와 대조								
열거								
	<table border="1"> <thead> <tr> <th>글의 구조</th> <th>중심 문장</th> </tr> </thead> <tbody> <tr> <td>처음</td> <td></td> </tr> <tr> <td>가운데</td> <td></td> </tr> <tr> <td>끝</td> <td></td> </tr> </tbody> </table>	글의 구조	중심 문장	처음		가운데		끝
글의 구조	중심 문장							
처음								
가운데								
끝								

**서술형 수행 평가 돋보기**

47쪽

1 (1) 예 투명 인간이 불가능한 까닭 (2) 열거

2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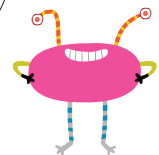
3 예 누구나 한 번쯤은 투명 인간에 대한 상상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투명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 그 까닭을 알아보자.

첫째, 만일 투명 인간이 있다면 시각 장애인일 것이다. 사람의 망막에 사물의 모습이 영상으로 맺혀야 볼 수 있는데 투명 인간은 망막이 투명하여 상이 맺히지 않아 앞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끼니를 잇는 것도 쉽지 않다. 음식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배설되기 전까지 항상 몸에 남아 있다. 따라서 투명 인간이 외출하고 싶다면 먼저 위장을 깨끗이 비워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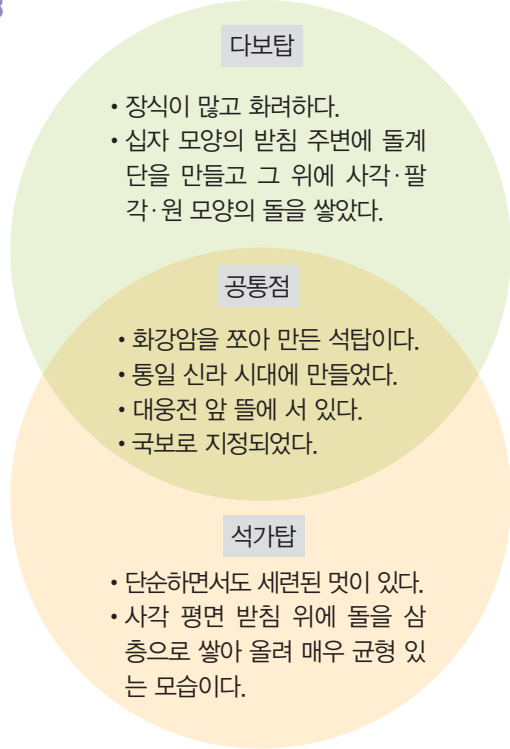
셋째, 완벽하게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몸에 달라붙는 미세한 먼지를 계속 털어내야 할 것이다. 등

글의 구조를 알면  
글의 내용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고,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기 쉬워.



01 ② 02 ④ 03 주하 04 불국사 05 ① 06 ⑤ 07 ②, ③

08



09 ⑤ 10 ㉠ 어류 피부는 비늘로 덮여 있어 몸을 보호해 주고, 아가미는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흡수한다. 또 어류는 옆줄로 환경 변화를 알아낸다.

- 01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 시간, 관람료, 휴관일 등의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제목은 ②입니다.
- 02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일의 방법이나 차례를 알 수 있습니다.
- 03 국립중앙박물관은 추석 당일에는 쉽니다.
- 04 두 탑은 '불국사 앞뜰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05 '다보탑과 석가탑은 공통점이 많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두 대상의 공통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사

용된 설명 방법은 '비교'입니다.

- 06 '두 탑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를 보면 두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07 '비교와 대조'를 사용하여 설명하면 좋은 주제는 두 가지 대상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①, ④, ⑤번은 '열거'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 08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정리할 수 있는 틀에 글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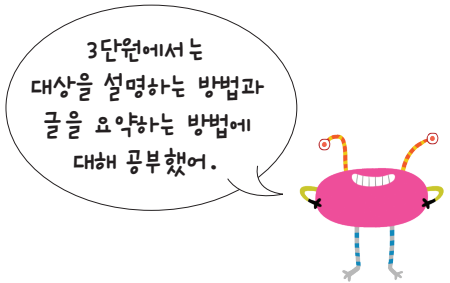
**채점 기준**

주어진 틀에 다보탑과 석가탑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게 정리했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09 이 글은 어류의 다양한 기관과 그 기관이 하는 일을 하나씩 예를 들어 열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10 이 글은 어류의 다양한 기관 중, 아가미, 비늘, 옆줄의 예를 늘어놓으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봅니다.

**채점 기준**

어류 피부와 아가미 옆줄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내용으로 써야겠어.'라는 민재의 생각을 보고 글을 읽을 사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12 쓸 내용을 떠올릴 때에는 글을 쓰는 목적과 글을 읽을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 13 민재는 강아지와 놀았던 일이 아닌 강아지가 아파서 힘들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 14 **가**는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린 방법입니다.
- 15 **나**는 글로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떠올린 방법입니다. 관련된 일이나 생각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16 주제를 정하여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려 씁니다.

**채점 기준**

**가**의 방법으로 주제와 쓰고 싶은 내용을 관련 있게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17 민재는 지난 주말에 겪은 일 중에서 달걀말이를 만들며 즐거웠던 일에 대해 글로 썼습니다.
- 18 민재는 삼촌께서 해 주신 달걀말이가 너무 맛있어서 삼촌께 달걀말이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 왔다고 하였습니다.
- 19 처음으로 만든 달걀말이를 아버지께서 맛있게 드셔서 민재는 기분이 좋고 뿌듯했을 것입니다.
- 20 민재가 소개한 달걀말이를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은 '달걀, 파, 소금, 식용유, 큰 그릇, 젓가락, 지짐 판, 뒤집개'입니다.
- 21 민재는 학급 신문에 실을 글을 친구에게 부탁 받고, 처음으로 스스로 달걀말이를 만든 경험을 소개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학급 신문을 읽을 사람은 반 친구들과 선생님일 것입니다.
- 22 글쓴이는 집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뒷산 시민 공원에 갔습니다. 이 글에는 시간 흐름과 장소 변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 23 글쓴이는 경험한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글을 쓴 것입니다.

- 24 글쓴이는 처음에 아빠께서 공원에 가자며 깨우셨을 때는 억지로 일어나서 툭툭거리며 짜증스러웠지만,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물을 마시니 기분이 상쾌했다고 하였습니다.

**더 알아보기**

「상쾌한 아침」에서 일어난 일과 그에 어울리는 생각이나 느낌

일어난 일		생각이나 느낌
아빠께서 나를 깨우심. 아빠께서 말씀하심.	처음	더 자고 싶어서 툭툭거리.
공원에서 걸음. 턱걸이를 다섯 개나 성공함. 운동으로 땀을 흘린 뒤에 물을 마심.	가운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놀람. 아빠께 칭찬을 들어 기분이 좋음. 물이 배 속까지 시원하게 함.
이웃 어른들께 반갑게 인사함. 아빠를 앞질러 집으로 달림.	끝	기분이 참 상쾌함.

- 25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내용을 흐름에 맞게 다발 지은 것입니다. 일어난 일과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 묶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다발 짓기**

- 시간 흐름과 장소 변화에 따라 일어난 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흐름에 따라 생각이나 느낌을 묶는 것을 '다발 짓기'라고 합니다.
- 떠올린 내용을 다발 짓기로 나타낼 때에도 글을 읽을 사람, 글 쓰는 상황이나 목적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 잘 조직된 글의 특징**

- 잘 읽힙니다.
- 글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 내용을 이해하기 쉬우니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 26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내일'과 호응하는 서술어는 '만날 거야'이고, '어제'와 호응하는 서술어는 '만났어'입니다.

- 27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이 알맞지 않습니다. 높임의 대상이 할아버지이므로 '잔다'가 아닌 '주무신다'로 고쳐 써야 합니다.
- 28 '바다가'라는 주어는 '보았다'라는 서술어와 어울리지 않아서 어색합니다.
- 29 '바다가'는 '보이게 되는' 것이므로 동작을 당하는 주어입니다. '바다가'는 '보였다'라는 서술어와 호응합니다.
- 30 문장에 쓰인 호응 관계가 '내일', '어제' 등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인 것은 ㉠과 ㉢입니다.

**더 알아보기**

**문장에 쓰인 호응 관계의 종류**

- ㉠ 내일 도서관에 갈 거야.  
→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 ㉡ 동생이 누나에게 업혔다.  
→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 ㉣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 할머니께서 맛있는 떡을 주셨다.  
→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 ㉥ 나는 어제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었다.  
→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 31 문장에 쓰인 호응 관계가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인 것은 ㉡와 ㉤입니다.
- 32 ㉠에서 주어는 '다람쥐와 새'이고, 서술어는 '지저귀니다'입니다. 목적어는 없습니다.
- 33 새는 지저귀지만 다람쥐는 지저귀지 않습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 되어서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채점 기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알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34 '다람쥐가'와 어울리는 서술어는 '뛰어놀다'이고, '새'와 어울리는 서술어는 '지저귀다'입니다.
- 35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어색한 문장입니다. 몸무

게는 무겁지만 키는 무거울 수 없습니다.

- 36 '키가'와 어울리는 서술어는 '크다'입니다.

**서술형 수행 평가 돋보기**

66쪽

- 1 예 (1) ㉠은 떠올린 내용을 흐름에 따라 다발 짓기 한 것이다. (2) ㉡는 다발 짓기 한 내용을 글로 쓴 것이다.
- 2 (1) 예 친구 집에 수학 공부를 하러 감. (2) 예 할머니께서 아직 집에 계신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함.
- 3 예 생각보다 오래 계셨지만 그래도 헤어질 때가 되니 섭섭했다. 우리 집에 더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가 다음부터 내가 할머니 댁에 자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즐거운 하루였다. / 할머니께서 가시니 섭섭한 마음이 들고, 나를 향해 웃어 주셨던 얼굴이 생각났다.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할머니께서 더 자주 오시면 좋겠다.

- 1 글쓰기의 과정인 '쓰기 목적과 대상 정하기, 경험 떠올리기, 쓸 내용 떠올리기, 다발 짓기, 글쓰기' 중에서 ㉠은 '다발 짓기', ㉡는 '글쓰기'입니다.
- 2 ㉡는 ㉠의 내용을 더 자세하고 실감 나게 쓴 것이므로 ㉡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 3 다발 짓기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어난 일과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글의 끝부분을 완성하여 씁니다.

**채점 기준**

상	다발 짓기 한 내용보다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쓰고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썼으면 만점입니다.
중	다발 짓기 끝부분의 내용을 보고 글을 썼지만 생각이나 느낌이 실감 나게 드러나지 않아 아쉽습니다.
하	쓴 내용이 다발 짓기 한 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글의 끝부분을 완성시키지 못했다면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원 확인 평가

72~73쪽

- 01 ① 02 (1) 꽃이, 피었습니다 (2) 예쁜, 들판에 03 ①  
 04 (1) ○ 05 ⑤ 06 나는 달걀말이를 좋아한다. 07 ②  
 08 예 짜증이 남. / 귀찮음. / 불만이 있음. 09 (3) ○ 10  
 (1) 예 아빠께서는 물통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2) 예  
 문장의 호응이 알맞지 않으면 어색한 문장이 되기 때문이다.  
 / 말하거나 쓴 사람의 의도가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01 ‘선수가’는 문장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말로 주어입니다.

더 알아보기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 ↓ ↓  
 주어 목적어 서술어

- 02 (1) 주어와 서술어가 없으면 문장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2) ‘예쁜’과 ‘들판에’는 문장을 더 자세하고 실감 나게 꾸며 주는 말입니다.
- 03 문장에서 필수 문장 성분인 주어와 서술어만 남기면 ‘꽃이 피었습니다.’가 됩니다.
- 04 **가**는 쓸 내용을 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 신기했던 일로 나누어 떠올린 것입니다.
- 05 **나**는 경험한 일과 그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하고 실감 나게 글로 나타낸 것입니다.
- 06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 필수 문장 성분만 남겨서 줄이면 ‘나는 달걀말이를 좋아한다.’가 됩니다.
- 07 아빠께서 운동을 하러 공원에 가자고 ‘나’를 깨우셨습니다. ‘나’는 공원에서 턱걸이를 다섯 번이나 해서 아빠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빠 뒤를 따라 뛰어 갔으며, 아빠를 따라 맨손 체조를 하고 물을 마셨습니다.
- 08 ‘툭툭거렸다’는 ‘마음에 차지 않아서 몹시 투덜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억지로 일어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 알아보기

글쓴이의 기분 변화 예

더 자고 싶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서 불만스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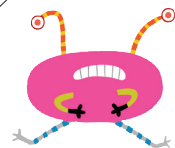
운동을 하고, 아빠께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좋음.

- 09 아빠는 높임의 대상이므로 그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 10 (1) ‘-는’ 대신에 ‘-께서는’을, ‘걸어갔다’ 대신에 ‘걸어가셨다’를 써야 합니다. (2) ㉠은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장의 호응이 잘못 되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채점 기준

호응 관계가 어색한 문장을 바르게 고치고, 호응에 맞게 글을 써야 하는 까닭을 정확한 의미 전달이나 의사 소통을 위해서라는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4단원에서는  
 글쓰기의 과정에 대해  
 공부했으니까,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재미있는 경험을 떠올려  
 글쓰기의 과정을 생각하며  
 알맞은 문장으로 한번  
 써 보렴.





## 교과서 내용 학습

76~83쪽

- 01 사람의 다리 02 다의어 03 (1) ○ 04 들다 05 (1) 예 적다 (2) 예 답안지에 답을 적었다. / 관심이 적었다. 06 지용 07 ④ 08 (2) ○ 09 ㉠ 10 ② 11 ①, ② 12 ④ 13 (3) ○ 14 ③ 15 예 대신 쓸 수 있는 낱말을 생각해 확인한다. / 국어사전에서 어울리는 뜻을 찾아 확인한다. / 문장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있는 뜻을 찾는다. 16 ⑤ 17 ② 18 현수 19 (1) ㉠ (2) ㉡ 20 ①, ④ 21 (1) ○ 22 ② 23 ③ 24 ⑤ 25 예 나는 글 ㉡의 입장이다. 텔레비전에서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았는데 인간이 알파고에게 졌다. 인공 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고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나는 글 ㉡의 입장이다. 인공 지능이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6 ① 27 ① 28 ④ 29 ㉠ 30 (1) ○ 31 ③ 32 (3) ○ 33 ④, ⑤ 34 예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화 발전을 막는 일이다. 35 (2) ○ 36 ㉡ 37 예 쓰기 윤리를 지키자. 38 예 제시한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본다. / 제시한 근거가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하는지 알아본다.
- 01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의 다리가 부러졌다는 말을 듣고 누군가 다리를 다친 줄 알고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 02 '다의어'는 한 낱말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경우에 그 낱말을 말합니다. 사람의 다리, 책상 다리, 안경다리의 공통점은 다리가 모두 무엇인가를 받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물을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다리'는 형태는 같지만 뜻이 서로 다른 낱말인 '동형어'에 해당합니다.
- 03 (2)번은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라는 뜻으로, (3)번은 '놀이 기구에 몸을 싣고 앞뒤로, 위아래로 또는 원을 그리며 움직이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04 '칼'과 '집'에 모두 어울리는 낱말은 '들다'입니다. '들다'는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린다.'라는 뜻과 '날이 날 카로워 물건이 잘 베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05 동형어나 다의어가 가진 다양한 뜻을 생각하며 낱말의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게 문장을 만들어 써 봅니다.

## 채점 기준

동형어나 다의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게 문장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06 글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낱말은 '보행, 교통사고, 어린이'입니다. 글쓴이는 보행 중인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7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 중에 초등학교가 많은 까닭은 초등학교가 바깥 활동이 많고, 위험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08 글쓴이는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행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09 기사(신문 기사/운전기사), 사고(생각하고 궁리함/뜻박에 일어난 불행한 일), 안전(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존귀한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의 앞), 일어나다(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서다/어떤 일이 생기다)는 모두 같은 모양이지만 뜻이 여러 가지인 낱말입니다. 자동차는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10 '일어나다'는 ①~⑤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문장의 앞뒤 내용을 살폈을 때 이 문장에 관련 있는 뜻은 '어떤 일이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11 글쓴이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서 학교 앞에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장치나 과속 방지턱을 더 많이 만들고, 어린이 보호 구역을 더 넓게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 과속 방지턱을 만들거나 어린이 보호 구역을 넓히는 것은 어린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는 교통 법

규와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무리하게 길을 건너지 않아야 합니다.

13 글쓴이는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가 많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힘쓰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 ㉠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다의어입니다. ㉠에서는 '생각이나 태도 따위를 마음에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 '손이나 몸 따위에 있게 하다.'를, ㉢은 '직업, 자격증 따위를 소유하다.'를, ㉣은 '아이나 새끼, 알을 배 속에 지니다.'를 뜻합니다. ㉤는 앞에 오는 말이 수단이나 방법이 됨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말입니다.

15 글에 사용된 동형어나 다의어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뜻 가운데 가장 어울리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낱말을 생각해 보거나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봅니다. 또 문장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있는 뜻을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바뀌 쓸 수 있는 낱말을 생각해 보거나 국어사전에서 찾아 뜻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16 글쓴이는 인공 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인공 지능'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7 글쓴이는 인공 지능의 위험성과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생각과 관련이 없는 낱말은 '자유'입니다.

18 글쓴이는 인공 지능 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 (1)은 자신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고, (2)는 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20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고 중요한 낱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여러 번 강조해 사용하는 낱말을 살펴보면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각 문단

의 중심 내용을 확인하면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21 글 ㉡의 중심 내용은 '인공 지능의 위험을 막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 '킬러 로봇 반대 운동'은 로봇이 사회에 끼칠 위험도 함께 생각해 보자는 내용의 운동입니다.

23 '포기'는 '초목의 날개를 세는 단위.',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이라는 뜻을 가진 동형어입니다.

24 글쓴이는 인공 지능에 대해서 꼭 필요한 기술, 편리함과 풍요로움 등 미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 글 ㉢는 인공 지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글 (나)는 인공 지능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신은 인공 지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지 부정적인 입장인지 정하고, 그 까닭을 생각해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인공 지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쓰고, 그 까닭을 적절하게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26 글쓴이는 인공 지능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인간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인공 지능을 개발하면 인공 지능이 인류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7 인공 지능 때문에 새로 생겨날 수 있는 일자리는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인공 지능이 인간 대신에 할 수 있는 힘들고 위험한 일입니다.

28 글 (나)에서 글쓴이는 인공 지능이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29 인공 지능이 인류에게 줄 이로움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글이므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이 인간에게 주는 편리함이나 도움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30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하지 않으면 주장에 대한 설득

력이 떨어지고 주장하는 내용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 31 글을 쓸 때 쓰기 윤리를 지키는 방법에는 진실인 내용만을 쓰기, 스스로에게 떳떳한 내용을 쓰기, 표절하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 32 (1)~(3)번 모두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이 중에서 표절과 관련이 있는 것은 글을 쓸 때 직접 쓴 것과 인용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 33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일이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물질·정신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34 글 (가)는 ‘쓰기 윤리를 지키자.’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쓴 문단입니다.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글을 베끼려는 사람이 많다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35 글쓴이는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회 전체에 혼란이 생기고 신뢰가 깨져서 문화 발전을 막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36 글을 쓸 때 출처를 밝히고, 거짓된 내용을 쓰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글에도 예의 있게 반응하는 것이 쓰기 윤리를 바르게 지키는 모습입니다.
- 37 ‘쓰기 윤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쓰기 윤리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내용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 글쓴이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8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적절한 근거는 주장의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고,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해 줘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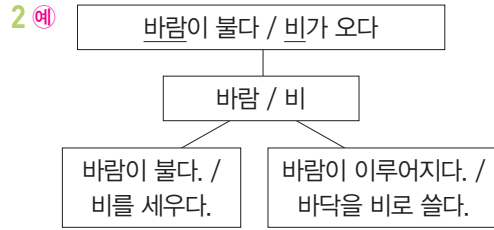
**채점 기준**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다거나 주장하는 내용을 잘 뒷받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서술형 수행 평가 돋보기**

84~85쪽

1 예 보다 / 비 / 바람 / 날 / 일기 / 안심



3 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기분이 좋았다. 올봄에는 활짝 핀 꽃처럼 내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면 좋겠다. / 엄마가 마당에 비질을 하라고 하셔서 툄툄거리며 마당으로 나갔다. 열심히 마당을 쓸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4 예 인공 지능이 일으킬 위험을 알고 그를 막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5 (1) 예 인공 지능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하게 할 것이다.

(2) 예 힘이 강한 나라나 집단이 힘이 약한 나라나 사람들을 지배할 수도 있다.

(3) 예 인간이 인공 지능에게 지배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6 예 동의한다. 미래의 많은 직업들이 인공 지능 때문에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취업이 잘 안 되어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인공 지능에 일자리를 빼앗기면 사람들이 살아가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 동의하지 않는다. 인공 지능은 인간 대신에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해 주어 인간을 보호할 수 있다. 또 불치병 치료나 우울증 극복과 같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 1 이 글에 사용된 동형어나 다의어 중에서 한 가지를 찾아 써 봅니다.
- 2 **보기**와 같은 낱말 그물을 만들어 동형어나 다의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생각하여 정리해 봅니다.
- 3 2번의 낱말 그물을 참고해 동형어나 다의어의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간 짧은 글로 표현해 봅니다.

**채점 기준**

상	동형어나 다의어의 2~3가지 뜻이 들어가게 짧은 글을 꾸며 썼으면 만점입니다.
중	동형어나 다의어의 한 가지 뜻만 들어가게 짧은 글을 쓴 점이 아쉽습니다.
하	동형어나 다의어를 사용하여 글을 쓰지 못했다면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 4 글을 읽고 반복되어 사용되는 낱말이나 중심 내용을 확인해 보고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써 봅니다.
- 5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근거를 세 가지 찾아 정리해 봅니다.
- 6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한 뒤(찬성 또는 반대)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하는 글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상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면 만점입니다.
중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여 주장하는 글을 썼지만,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하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만을 선택하고 주장하는 글을 쓰지 못했다면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원 확인 평가**

90~91쪽

01 (2) ○ 02 ④ 03 예 나는 다리를 다쳐서 저 다리를 올라갈 수 없어. / 부러진 안경다리를 고치려면 저 다리 너머에 있는 안경점에 가야 해. / 저기에 있는 다리가 공사 중이라 먼 길로 돌아왔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다. 04 ⑤ 05 ④ 06 ④ 07 ④ 08 예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09 (1) ○ 10 예 주장하는 글에서 근거가 적절한지 살펴봐야 하는 까닭은 근거가 적절하지 않으면 주장하는 내용에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 적절한 근거가 없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01 ‘다리01, 다리02, 다리03’으로 표시된 낱말은 형태는 같지만 뜻이 서로 다른 낱말인 동형어입니다.
- 02 ①, ②, ③, ⑤의 ‘다리’는 다리01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03 ‘다리’의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도록 재미있게 표현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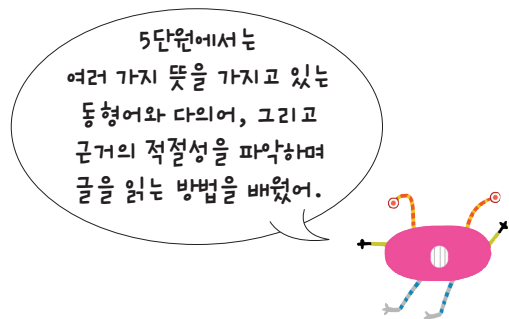
**채점 기준**

동형어 ‘다리’의 두 가지 뜻이 모두 들어가 있고 말이 되게 쓰이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04 ‘어두운 그림자, 위험’이라는 낱말이 나오는 것을 통해 글쓴이는 인공 지능이 일으킬 위험을 막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05 글쓴이는 인공 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④는 인공 지능의 긍정적인 면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입니다.
- 06 글쓴이는 ‘쓰기 윤리를 지키자.’고 주장하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 07 ㉠에 사용된 ‘쓰다’는 ‘글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글을 짓는다는 뜻을 가진 문장을 찾아봅니다.
- 08 ‘첫째’로 시작하는 문단이 주장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근거를 정리하여 써 봅니다.
- 09 글쓴이는 아무리 잘 쓴 글이라고 해도 쓰기 윤리에 벗어난 글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10 근거가 적절하지 않으면 주장하는 내용도 믿을 수 없으며, 적절한 근거가 많을수록 글쓴이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채점 기준**

근거가 적절하지 않으면 주장하는 내용의 신뢰성이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교과서 내용 학습

94~99쪽

01 ② 02 예 그림 가에서는 알림 글로 결정된 내용을 전달했고, 그림 나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운동장을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의논하고 있다. 03 ①, ⑤ 04 민지 05 (1) 마련하기 (2) 모으기 (3) 결정하기 06 (2) ○ 07 ①, ④ 08 ①, ② 09 (2) ○ 10 ④ 11 ① 12 ③ 13 (3) ○ 14 ③, ⑤ 15 ⑤ 16 (1) 예 '찾아가는 선배들'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우리반 친구들이 1~2학년 동생들에게 노래나 악기 연주, 춤 공연을 보여 주거나 책을 읽어 주는 시간을 마련해 찾아가면 선후배 사이에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7 (1) 주제 (2) 근거 (3) 실천 18 (1) ㉠ (2) ㉡ 19 (1) ㉠ (2) ㉡ 20 ①, ④ 21 (1) 어린이 보호 구역 (2) 교통사고 22 ⑤ 23 ① 24 예 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해 팻말을 만들어서 홍보 활동을 한 적이 있다. 25 ③, ④ 26 ㉠ 27 (3) ○ 28 (1) 예 우리 학교 안전 지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2) 예 학교 곳곳에 있는 안전하지 않은 곳을 널리 알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 운동장을 안전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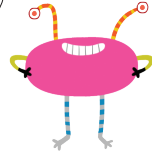
02 그림 가에서는 알림 글로 결정된 내용을 전달했고, 그림 나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운동장을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 채점 기준

그림 가에서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결정된 내용만 전달받았는데, 그림 나에서는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비교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03 토의를 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논의해야 해서 빠르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해결 과정도 잘 알 수 있으며,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여 결정된 내용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여러 사람이 협력해  
해결하는 방법을  
'토의'라고 해.



04 토의를 하면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토의가 필요합니다.

05 토의의 절차는 '토의 주제 정하기 → 의견 마련하기 → 의견 모으기 → 의견 결정하기'입니다.

06 먼저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한 뒤 토의 주제로 알맞은지 판단하여 토의 주제를 결정합니다.

07 토의 주제로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주제인지, 해결할 수 있는 주제인지,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재미있는지는 토의 주제를 판단할 때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모두가 같은 의견을 낼만 한 주제는 토의할 필요가 없는 주제입니다.

08 까닭을 들어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의 장단점을 살펴봅니다.

## 더 알아보기

## '의견 모으기' 방법

-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 각 의견의 장단점을 찾습니다.
- 의견이 알맞은지 판단할 기준을 세웁니다.
- 기준에 따라 의견이 알맞은지 판단합니다.

09 토의 주제에는 맞고 실현 가능하나 자신의 의견만 말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0 마루는 개교기념일에 학교에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11 마루는 토의에 참여하였으나 의견에 알맞은 까닭을 제시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반말로 이야기하며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웠으며,

친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말할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다.

- 12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 13 의견을 주고받은 뒤 의견마다 장단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 14 개교기념일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토의 주제에 맞는 내용인지,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었는지,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친한 친구가 제시한 의견인지, 선생님이 좋아하실 의견인지는 의견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15 학급의 날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으므로 학급의 날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를 토의 주제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16 학급의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자신의 의견을 쓰고, 그 의견이 좋은 까닭을 생각하여 씁니다.

**채점 기준**

학급의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자신의 의견을 쓰고, 그 의견이 좋은 까닭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17 자신의 의견을 쓸 때 토의 주제에 맞는 내용인지,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었는지, 실천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 18 학급의 날에 장기 자랑을 하면 그날을 재밌게 보낼 수 있으며 친구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급의 날을 우리끼리 즐겁게 노는 것으로 다 써 버려

아쉬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19 학급의 날에 ‘찾아가는 선배들’ 활동을 하면 우리의 장기를 활용해 후배들과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1~2학년 가운데 신청하는 학급을 조사해야 하고 모둠을 나누어 연습하는 등 준비할 점이 많습니다.
- 20 토의 주제에 맞는 내용인지,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었는지, 실천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1 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유치원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22 학생들은 과거에도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23 전교 학생회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안전을 마련하여 회의를 했고, ‘구청장님께 편지 쓰기’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왔습니다.
- 24 이 기사문의 내용처럼 학교 앞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하거나 홍보 활동 등을 한 경험을 떠올려 씁니다.

**채점 기준**

이 글과 관련한 주변의 사례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25 어린이 보호 구역 표지판의 크기를 키우고 밤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지판 테두리를 엘이디(LED)로 반짝이게 만들어 밤이든 낮이든 운전자들이 이곳이 어린이 보호 구역임을 분명히 알게 하자는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 26 학생들은 전교 학생회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하여 토의해 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곳곳에 알람 글을 붙이고 전교생 편지 쓰기와 구청장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27 학교의 안전과 관련하여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방법’을 주제로 정해 토의하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28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천할 일을 떠올려 주장을 쓰고, 그렇게 하면 무엇이 좋은지 생각하여 근거를 씁니다.

**채점 기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주제에 알맞은 주장을 쓰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채점 기준**

상	토의 주제와 관련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시한 의견의 좋은 점을 알맞게 썼으면 만점입니다.
중	토의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방법이고, 제시한 의견의 좋은 점이 아니라 주제 관련 여부만 써서 아쉽습니다.
하	토의 주제와 관련이 있지 않은 엉뚱한 내용을 써서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서술형 수행 평가 돋보기**

100쪽

- 1 예 운동장에 나와서 친구들이 줄을 빨리 서지 않아 먼저 온 친구들이 매번 기다린다.
- 2 예 저는 친구들이 빨리 줄을 서도록 3분 모래시계 사용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3분 안에 모두 줄을 서면 학급 칭찬 점수를 올리도록 합니다.
- 3 예 3분 모래시계를 사용하면 주어진 시간을 눈으로 확인하기 쉽습니다. 학급 칭찬 점수도 올릴 수 있어서 친구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 1 운동장에 나와 몇몇의 친구들이 줄을 빨리 서지 않아 먼저 나와 줄을 선 친구들이 매번 기다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 2 어떻게 하면 운동장에 나와 빨리 줄을 설 수 있을지 알맞은 방법을 떠올려 써 봅니다.
- 3 자신이 제안한 의견이 어떤 점에서 좋은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들어 써 봅니다.

**단원 확인 평가**

105~106쪽

01 토의 02 ③ 03 라 → 가 → 다 → 나 04 ②, ③  
 05 (1) 예 우리 학교 역사 찾기 행사를 합니다. (2) 예 우리 학교 역사를 찾아보면 학교가 어떤 과정으로 바뀌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학교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면 학교 이름이나 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06 (1) ○ 07 (1) 까닭(근거) (2) 주제 (3) 존중 08 성우 09 예 제안하는 내용은 토의 주제에 맞지만 대출한 도서 수는 토의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이다. 10 의견2

- 01 어떤 문제를 여러 사람이 협력해 해결하는 방법을 토의라고 합니다.
- 02 공동의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협력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때 토의를 하는데, ③은 알림장을 보고 혼자서 준비물을 챙기면 되므로 토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03 가는 ‘의견 마련하기’, 나 는 ‘의견 결정하기’, 다 는 ‘의견 모으기’, 라 는 ‘토의 주제 정하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토의의 절차는 ‘토의 주제 정하기 → 의견 마련하기 → 의견 모으기 → 의견 결정하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더 알아보기**

**토의 절차와 방법**

토의 절차	토의 방법
토의 주제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자유롭게 이야기 하기</li> <li>• 토의 주제로 알맞은지 판단하기</li> <li>• 토의 주제 결정하기</li> </ul>
↓	
의견 마련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의 주제에 맞게 자신의 의견 쓰기</li> <li>• 그 의견이 좋은 까닭 쓰기</li> </ul>
↓	
의견 모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과 의견 주고받기</li> <li>• 각 의견의 장단점 찾기</li> <li>• 의견이 알맞은지 판단할 기준 세우기</li> <li>• 기준에 따라 의견이 알맞은지 판단하기</li> </ul>
↓	
의견 결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에 따라 가장 알맞은 의견으로 결정 하기</li> </ul>

04 의견을 결정할 때는 실천할 수 있고, 토의 주제에 맞는 의견을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주제인지, 해결할 수 있는 주제인지,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제인지는 토의 주제를 정할 때 살펴볼 내용입니다.

05 개교기념일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여 쓰고, 그 의견의 좋은 점을 찾아 근거로 듭니다.

**채점 기준**

개교기념일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을 쓰고, 의견의 좋은 점도 타당하게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06 제시된 토의 방법은 토의의 세 번째 단계인 ‘의견 모으기’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07 알맞은 까닭(근거)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토의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듣습니다.

08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말할 때에는 까닭을 자세히 말하고, 친구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의견을 말하거나 결정할 때에는 무조건 빠르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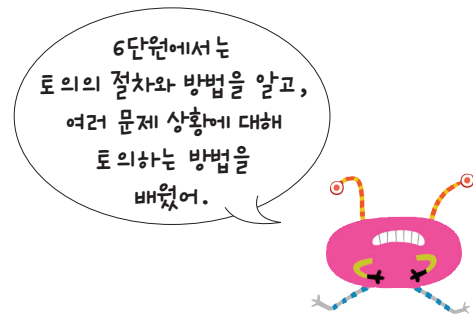
이 필요합니다.

09 의견은 토의 주제에 맞지만 대출한 권수를 말한 것은 토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채점 기준**

토의 주제와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말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10 장기 사랑을 하는 것과 ‘찾아가는 선배들’ 활동을 하는 것 모두 반 친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이지만, 즐거움과 보람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의견은 <의견>입니다. 준비가 힘들겠지만 후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교과서 내용 학습

110~114쪽

01 제주도 02 ㉠ 03 예 여행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글로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04 (1) ○ (3) ○ 05 (3) ○ 06 구좌읍 세화리 송당리 일대 07 ㉠ 08 (1) ㉠ (2) ㉠ (3) ㉠ 09 ㉠ 10 감상 11 일출봉 분화구 12 (1) - ㉠ (2) - ㉠ 13 한라산 14 ㉠ 15 ㉠ 16 예 오르면 오를수록 이 수직의 기암들이 점점 더 하늘로 치솟아 올라 신비스럽고도 웅장한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17 ㉠ 18 (1) 예 해인사 (2) 예 해인사에서 봤던 팔만대장경이 기억에 많이 남아서 19 ㉠ 20 나도 오랜만에 외할머니 댁에 오니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웠다. 21 (1) 감 (2) 여 (3) 건 (4) 감 22 (1) 시간 (2) 자세히 (3) 느낌

- 01 서윤이와 현석이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02 현석이는 제주도 여행을 가서 좋은 추억이 많았는데, 글로 남긴 것이 없어서 여행했던 경험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 03 서윤이는 여행 때 찍은 사진과 함께 글로 남겨 놓아서 여행 경험을 자세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 채점 기준**  
여행을 다녀와서 글로 남겨 놓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04 여행하며 보고 느낀 점을 글로 쓰면 여행했던 경험을 다시 느낄 수 있고,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으며, 여행했을 때의 기분을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 05 글쓴이는 제주의 풍광이 철 따라 다르고 날씨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신천지에 오는 것 같은 설렘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 06 제주의 동북쪽 구좌읍 세화리 송당리 일대는 제주도에 서도 오름이 가장 많고 아름다워 '오름의 왕국'이라고 하였습니다.
- 07 다랑쉬오름은 오름의 분화구가 마치 달처럼 둥글어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 08 여행하면서 다닌 곳은 여정,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은 견문, 여행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것은 감상이라고 합니다.
- 09 성산 일출봉에서 제주 올레 제1경로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 더 알아보기

- ① 성산 일출봉의 서쪽이 제주도와 연결되어 있어 배를 타지 않아도 됩니다.  
③ 동·남·북쪽이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 10 오름의 아랫자락을 걸으면서 느꼈던 기분을 쓴 부분이므로 '감상'입니다.
- 11 전설에 따르면 설문대 할망은 성산 일출봉 분화구를 빨래 바구니로 삼고 옷을 매일 세탁했다고 하였습니다.
- 12 여행하면서 다닌 곳은 여정,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은 견문, 여행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것은 감상이라고 합니다. ㉠은 견문, ㉠은 감상에 해당합니다.
- 13 '어리목에서 출발하여 ~ 영실로 하산하면서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고 하였습니다.
- 14 ㉠은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고, ㉠와 ㉠은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 15 '~에서 출발하여', '~을 지나' 따위의 장소 표현을 써서 여정을 나타냈습니다.
- 16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 씁니다.
- 채점 기준**  
한라산을 오르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것이 나타난 부분, 글쓴이가 본 것에 대한 느낌이 표현된 부분을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17 기행문을 쓰는 목적, 그 장소를 고른 까닭, 글을 읽을

사람, 필요한 자료 등을 생각해서 글을 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 ④는 기행문을 쓸 때 준비해야 할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18 여행했던 곳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곳과 그 장소를 고른 까닭을 씁니다.

**채점 기준**

기억에 남는 여행 장소와 그 장소를 고른 까닭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19 기행문의 처음 부분에는 여행한 까닭이나 목적을 쓰고, 여행을 떠나기 전의 기대와 설렘, 떠날 때 날씨와 교통편,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나 여행 일정 소개 따위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여행의 전체 감상은 기행문 끝부분에 들어가야 합니다.

20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봅니다.

21 (2)는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이 나타나 있는 여정, (3)은 여행하며 보거나 들어서 안 것이 나타나 있는 견문, (1)과 (4)는 여행하면서 보고 들으며 한 생각이나 든 느낌이 나타나 있는 감상에 해당합니다.

22 시간과 장소가 잘 드러나게 나타내고, 보고 들은 내용을 생생하고 자세히 나타냅니다. 생각이나 느낌도 함께 나타냅니다.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여정이라고 하고, 여행하며 보거나 들어서 안 것을 견문이라고 하며, 여행하며 든 생각이나 느낌을 감상이라고 해. 기행문은 여정을 적고, 여행으로 얻은 견문과 감상을 쓴 글이야.



**서술형 수행 평가 돋보기**

1 예 거문오름

2 (1) 예 거문오름의 자연환경, 거문오름의 역사와 문화, 거문오름 탐방, 거문오름에서 열리는 국제 트래킹 행사 내용과 일정  
(2) 예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나 기록 내용 찾기, 여행지에 대한 책 찾아보기, 지역의 누리집 살펴보기, 여행지 관련 안내서 찾아보기

3 (1) 예 세계 자연 유산, 거문오름

예 거문오름 사진 붙이기

(2) 예 거문오름의 자연 환경

예 거문오름의 높이, 크기, 지형적 특징, 볼 수 있는 동·식물에 대한 설명

예 거문오름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 사진 붙이기

(3) 예 거문오름의 역사와 문화

예 거문오름에 남아 있는 일제 강점기의 군사 시설과 옛 숲가마 터에 대한 설명

예 관련 군사 시설과 옛 숲가마 터 사진 붙이기

(4) 예 거문오름에서 열리는 국제 트래킹 행사

예 트래킹 행사 참여 방법, 규모, 행사 내용 등에 대한 설명

예 트래킹 행사에 참여했을 때 찍은 사진 붙이기

1 내가 여행한 곳 중에서 기억에 남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곳을 떠올려 봅니다.

- 2 안내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과 자료 수집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 3 접이식 소책자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생각하여 소책자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채점 기준**

상	안내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과 자료 수집 방법을 세 가지 이상씩 쓰고, 표지와 각 페이지에 들어갈 제목과 그 내용을 알맞게 썼으며,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였으면 만점입니다.
중	안내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과 자료 수집 방법을 두 가지씩 쓰고, 각 페이지에 들어갈 제목과 내용을 썼지만 자료 활용에 대한 내용을 쓰지 않아 아쉽습니다.
하	안내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나 자료 수집 방법을 한 가지만 쓰고, 소책자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각 페이지의 제목만 썼습니다.

06 여행하면서 다닌 곳은 여정,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은 견문, 여행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것은 감상이라고 합니다.

07 ①과 ④는 여정, ⑤는 감상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08 여행한 곳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곳과 그곳에서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씁니다.

**채점 기준**

여행했던 곳과 그 곳에서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09 여행 떠나기 전의 기대는 기행문의 처음 부분에 들어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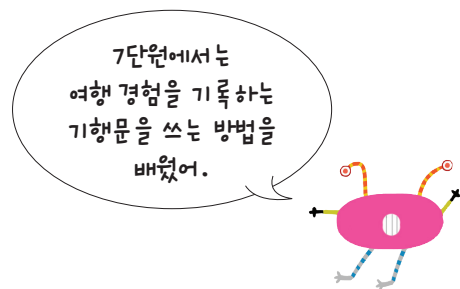
10 ④는 기행문과 관련이 없는 제안하는 글을 쓸 때에 주의할 점입니다. 기행문을 쓸 때에는 여행한 순서에 따라 시간과 장소가 잘 드러나게 나타내고, 보고 들은 내용을 생생하게 자세히 풀어 나타냅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도 함께 나타냅니다.

**단원 확인 평가**

119~120쪽

01 ② 02 ④ 03 ① 04 한라산, 거문오름, 만장굴, 성산 일출봉 05 ③ 06 (1) - ① (2) - ② (3) - ③ 07 ②, ③ 08 (1) 예 경주 (2) 예 경주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며 선조들의 지혜에 놀랐다. 09 ④ 10 ④

- 01 서윤이는 현석이에게 제주도에 다녀온 것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 02 현석이는 여행하고서 글로 남겨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했던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03 여행 경험을 기록한 글을 기행문이라고 합니다.
- 04 서윤이는 한라산, 거문오름, 만장굴, 성산 일출봉을 다녀왔다고 하였습니다.
- 05 기행문을 쓰면 여행하며 경험하고 느낀 것을 시간이 지나서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여행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 교과서 내용 학습

124~136쪽

01 바늘, 방석 02 ⑤ 03 ④ 04 ② 05 ③ 06 방울토마토 07 ② 08 ① 09 ④ 10 예 잘 모르는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 낱말들을 합해서 새로운 낱말을 만들 수 있다. / 낱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다. 11 구름다리 12 ③ 13 ④ 14 새우잠 15 ① 16 ⑤ 17 책, 가방 18 ② 19 ③ 20 ② 21 풀이 참조 22 예 낱말에 다른 낱말을 합해서 만든다. / 뜻을 더해 주는 말에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해서 만든다. 23 ⑤ 24 (1) - ② (2) - ① 25 잘 끊어지지 않고 탄력이 있어서 26 예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글의 내용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된다. / 자신이 아는 내용과 비교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등 27 ④ 28 ⑤ 29 정훈 30 (1) ○ 31 ④, ⑤ 32 ③ 33 ④ 34 재호 35 ⑤ 36 편경 37 ③ 38 예 서로 겪은 일이나 아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39 ④ 40 지환 41 ① 42 예 사람들에게 멸종 위기의 동물을 구하자는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43 ② 44 ③ 45 ⑤ 46 유하 47 산업화·도시화가 되면서 환경이 오염되어서 48 ④ 49 ① 50 ② 51 ⑤ 52 ⑤ 53 ④ 54 예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아는 내용과 비교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등 55 솜씨 마당 56 ⑤ 57 예 솜씨 자랑 판, 재능 마당 등 58 (1) - ③ (2) - ① (3) - ② 59 ④

- 01 '바늘방석'은 '바늘'과 '방석'을 합한 말입니다.
- 02 '맨주먹'은 '맨-'과 '주먹'으로 나눌 수 있고, '맨-'은 '다른 것이 없다'는 뜻이므로, '맨주먹'은 '아무것도 없는 빈주먹'이라는 뜻입니다.
- 03 '바늘방석'은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해서 만든 새로운 낱말입니다. '고기만두'는 '고기'와 '만두'를 합해서 만든

새로운 낱말입니다.

- 04 선생님은 낱말을 쪼개 살펴보면 뜻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05 복합어에는 '검붉다', '사과나무'처럼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친 낱말과 '덧신', '햇밤'처럼 뜻을 더해 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한 낱말이 있습니다.
- 06 '방울'과 '토마토'를 합한 낱말은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훨씬 작은, 방울 모양의 토마토입니다.
- 07 '산딸기'는 '산'과 '딸기'를 합한 낱말로 '산에서 나는 딸기.'라는 뜻입니다.
- 08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 두 낱말을 모두 완성할 수 있는 글자는 '손'입니다. '손'이 들어가서 완성된 두 낱말은 '손수건', '손수레'입니다.
- 09 '애호박', '애가지', '애벌레', '애송아지'는 모두 '애-'가 합쳐진 복합어입니다. '애-'는 '어린' 또는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 10 낱말의 짜임을 알면 잘 모르는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고, 낱말들을 합해서 새로운 낱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낱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채점 기준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새로운 낱말을 만들 수 있다.' 등과 같이 제시한 내용과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도록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11 '구름'과 '다리'를 합한 낱말은 '구름다리'입니다.
- 12 '눈사람'은 '눈'과 '사람'으로, '햇걸음'은 '햇-'과 '걸음'으로, '군소리'는 '군-'과 '소리'로, '농사꾼'은 '농사'와 '-꾼'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 13 '새우등'은 '새우'와 '등'을 합한 낱말로 새우처럼 굽은 등을 뜻합니다.
- 14 '새우잠'은 '새우'와 '잠'을 합한 낱말로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을 뜻합니다.

- 15 '꽃-'은 '털 익은'을 뜻하는 낱말로, '꽃고추'는 '털 익은 고추'를, '꽃밤'은 '털 익은 밤'을 뜻합니다.
- 16 '꽃-'은 '털 익은'을 뜻하는 낱말로, '꽃-'이 들어간 낱말에는 '꽃벼', '꽃대추', '꽃곡식', '꽃사랑' 등의 낱말이 있습니다.
- 17 '책가방'은 '책'과 '가방'이 합쳐진 낱말입니다.
- 18 '짱돌'은 '짱'과 '돌'을, '돌담'은 '돌'과 '담'을, '돌미역'은 '돌'과 '미역'을, '돌다리'은 '돌'과 '다리'를 합해서 만든 복합어입니다.
- 19 '햇과일'은 '그해에 새로 난 과일.'을 뜻합니다.
- 20 '소금물', '햇과일', '물통', '골목길' 등은 모두 두 낱말이 합쳐진 복합어입니다.
- 21 '비'에 다른 낱말을 합해서 만든 복합어에는 '꽃비', '비구름', '겨울비', '비웃' 등이 있습니다.



- 22 낱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낱말에 다른 낱말을 합해서 낱말을 만들거나, 뜻을 더해 주는 말에 낱말을 합해서 낱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낱말에 다른 낱말을 합한다.' '뜻을 더해 주는 말에 낱말을 합한다.' 등과 같이 제시한 내용과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도록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23 우리나라 악기들은 자연에서 얻은 여덟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명주실, 대나무, 박, 흙, 가죽, 쇠붙이, 돌, 나무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24 쇠에서 울리는 우렁차고 광대한 소리는 높은 가을 하늘 같고, 돌의 묵직한 소리는 겨울의 웅장함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 25 명주실은 잘 끊어지지 않고 탄력이 있어서 가야금, 거

문고, 아쟁, 해금 같은 악기의 줄로 쓰입니다.

- 26 글을 읽을 때 겪은 일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글의 내용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채점 기준**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글의 내용에 더 흥미를 가진다.' 등과 같이 제시한 내용과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도록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27 대나무로는 대금, 피리, 단소를 만듭니다. 박으로는 생황을, 흙으로는 훈이나 부 같은 악기를 만듭니다.
- 28 장인들은 대나무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었고, 대나무로 만든 악기도 많습니다. 흙은 쓰임이 많은 재료이고, 원하는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29 정훈이는 전통 악기 박물관에서 생황을 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30 (1)은 제시된 지문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지만 (2)는 제시된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 31 북은 동물의 가죽을 이용하여 만든 악기입니다. 또한 백성들과 아주 가까운 악기로 힘든 농사일에 흥을 돋우기 위한 풍물놀이에도 빠지지 않았습다. 모래시계를 옆으로 누어 놓은 것처럼 생긴 악기는 장구입니다.
- 32 쇠를 녹여 만든 우리 악기에는 징, 팽과리, 편종, 특종, 나발 등이 있습니다.
- 33 박을 연주하는 사람은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 34 재호는 글을 읽고 편종이나 특종과 같은 특이한 이름을 가진 전통 악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민이는 글의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준이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35 돌로 만든 악기는 추위나 더위에 강하기 때문에 음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악기의 음을 맞추거나 고르게 할 때 기준이 됩니다.

- 36 돌로 만든 악기에는 편경과 특경이 있습니다. 편경은 단단한 돌을 ‘ㄱ’자 모양으로 깎아서 만든 악기입니다.
- 37 우리의 옛 악기들은 각자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고 둥글게 어울려 서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가락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 38 서로 겪은 일이나 아는 내용이 다르면 같은 글을 읽더라도 새로 안 내용이나 관심을 두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겪은 일이 다르다.’ ‘아는 내용이 다르다’ 등과 같이 제시한 내용과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도록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39 1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멸종되어 가는 동물이 많다고 하였고, 2의 시작 부분에서는 멸종 위기 동물인 점박이물범의 입장에서 멸종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40 지환이는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현주는 관련이 없는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41 점박이물범은 새끼를 낳으려면 부빙이 필요한데 지구가 따뜻해지는 바람에 얼음들이 녹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42 글쓴이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상황을 전달함으로써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자는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호하자.’ ‘멸종 위기의 동물을 구하자.’ 등과 같이 제시한 내용과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도록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43 사람들은 산양을 사냥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 44 산양은 험한 바위산에 살고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 45 반달가슴곰은 산에서 도토리, 가래, 산뽕나무의 열매 등을 먹고 여기저기에 똥을 누면, 그 똥이 흙을 좋게 만들어서 씨앗이 돌아오게 하고 산을 푸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반달가슴곰이 있어야 지리산의 생태계가 잘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 46 미진이의 물음은 답이 정해진 질문입니다.
- 47 꼬치동자개는 1940년대까지는 도시에서도 쉽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한 물고기였지만 산업화·도시화가 되면서 환경이 오염되어 마음 놓고 살 곳이 사라져 버렸고 멸종 위기 1등급이 되었습니다.
- 48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아는 지식’은 글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제시된 글은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 동물에 관한 글이므로 ‘텔레비전에서 본 멸종 위기 동물’이라면 글 내용의 이해를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49 우리나라는 멸종 위기 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멸종 위기 동물이라는 의미입니다.
- 50 글의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깃대종과 지표종입니다.’이므로 뒷부분에는 깃대종과 지표종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질 것입니다.
- 51 깃대종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생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깃대종으로는 설악산의 산양, 내장산의 비단벌레, 속리산의 하늘다람쥐, 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이 있습니다.
- 52 공기가 좋은 곳에서 사는 카나리아는 산소가 부족하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 노래를 멈춥니다. 그래서 광부들은 카나리아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 53 물곰팡이나 실지렁이 등이 살고 있다면, 그 연못은 4급수입니다. 4급수의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므로 사람이 마실 수 없습니다.
- 54 아는 지식을 생각하며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내용과 비교하며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등과 같이 제시한 내용과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도

록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55 2에서 여자아이는 ‘솜씨를 뽐낼 수 있는 곳이니까 ‘솜씨 마당’이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하였습니다.
- 56 남자아이는 ‘우리의 생각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생각 나눔터’라고 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 57 친구들이 작품을 붙일 수 있는 알림판이므로 그러한 의미가 되도록 두 낱말을 합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솜씨를 자랑하는 공간이므로 ‘솜씨 자랑판’이라고 하거나, 재능을 뽐내는 마당이므로 ‘재능 마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알림판의 의미에 알맞은 낱말이 들어가도록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58 ‘주스’는 ‘과일즙’이, ‘튜브’는 ‘물놀이 바람 도구’, ‘내비게이션’은 ‘길 박사가 새말로 어울립니다.
- 59 ‘색깔 막대’는 다양한 색의 막대가 생각나는 낱말이므로, ‘크레파스’를 바꾸기에 알맞은 낱말입니다.

**단원 확인 평가**

142~143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② 05 ① 06 ③ 07 ① 08

돌로 만든 악기는 추위나 더위에 강해서 음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09 ①, ③ 10 예 물놀이 바람 도구, 바람 주머니 등 / 물놀이 할 때 이용하고, 공기가 가득 들어 있어서

- 01 ‘구름다리’는 ‘구름’과 ‘다리’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낱말입니다. ‘방울토마토’는 ‘방울’과 ‘토마토’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낱말입니다. ‘하늘’, ‘구름’, ‘무지개’, ‘소나기’는 쪼갤 수 없는 낱말입니다.

- 02 제시된 낱말들을 통하여 ‘-꾼’이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혹은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03 ‘햇사과’는 ‘햇-’과 ‘사과’가 합해진 말입니다. ‘햇-’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 해에 새로 난’이라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 04 흙으로 만든 악기에는 혼과 부가 있고, 쇠로 만든 악기에는 징, 팽과리, 편종, 특종, 나발 등이 있습니다.

- 05 글을 읽을 때 겪은 일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글의 내용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아는 내용과 비교하며 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 06 나무는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쓰임도 많은 재료입니다.

- 07 편경과 특경의 공통점은 돌로 만든 악기라는 것입니다.

- 08 돌로 만든 악기는 추위나 더위에 강하기 때문에 음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악기의 음을 맞추거나 고르게 할 때 기준이 되었습니다.

- 09 같은 글을 읽어도 읽은 사람에 따라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관심을 두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겪은 일이나 아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10 튜브는 물놀이 할 때 이용하는 것으로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말로 만든다면 ‘바람 주머니’, ‘물놀이 바람 도구’ 등처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

튜브를 연상할 수 있는 새로운 낱말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알맞게 제시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교과서 내용 학습

146~150쪽

01 ⑤ 02 예 「마당을 나온 암탉」 / 친구가 「마당을 나온 암탉」을 재미있게 읽는 것을 보고, 나도 그 책을 읽어 보았다.  
 03 지우 04 ③ 05 ⑤ 06 ③ 07 ② 08 (1)○ 09 ②  
 10 ③ 11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12 ④  
 13 예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한다. /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생각하며 자신의 의견과 비교해 비판하는 태도로 읽는다. 등 14 고려청자 15 ㉠, ㉡ 16 중요한 낱말 17 ④  
 18 ⑤ 19 ② 20 (1)○ 21 예 읽는 목적을 생각한다. / 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봄에 읽는다. / 설명하는 내용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생각하며 필요한 정보에 집중하며 읽는다. 등

- 01 지윤이는 궁금한 것이 생겨서, 제목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드론이 어떤 것인지 더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 관심 있는 내용이 있어서 글을 읽었습니다.
- 02 궁금한 것이 있거나, 관심 있는 내용이 있을 때, 혹은 누군가가 읽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보여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채점 기준**  
 자신이 읽은 글과 그 글을 읽은 까닭을 알맞게 제시하여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03 지우는 곤충을 보고 궁금한 점을 책을 읽고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책을 읽고 도움을 받은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04 교통질서 지키기에 대한 광고를 그린다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의 책이나 교통질서 지키기 광고지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05 목적에 맞게 글을 찾아 읽으면 찾고 싶은 정보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읽고 싶은 책을 알맞

게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 06 이 글은 정보 무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07 정보 무늬는 ‘빠른 응답’이라는 영어의 줄임 말입니다.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 무늬를 찍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지워도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어서 개인 정보를 담아 명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무늬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08 정보 무늬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09 이와 같은 글은 설명하는 글입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무엇을 설명하는지, 설명하는 대상의 무엇을 설명하는지, 이미 알던 내용은 무엇인지, 새롭게 안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며 읽어야 합니다.
- 10 글쓴이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11 글쓴이는 미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12 글쓴이는 인공 지능과 새로운 기술이 삶을 급격하게 바꿀 때 함께 마음을 모아 서로 돕고 존중하는 태도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13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찾고 그것이 옳은지 생각해 봅니다. 또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비판하는 태도로 읽어야 합니다.
- 채점 기준**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찾는다.’ ‘자신의 의견과 비교해 비판하는 태도로 읽는다.’ 등과 같이 제시한 내용과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도록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14 제시된 글은 고려청자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 15 청자의 빛깔은 맑고 은은한 푸른 녹색입니다. 이는 유약 안에 아주 작은 기포가 많아 빛이 반사되면서 은은하고 투명하게 비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 16 규빈이는 훑어 읽기 방식으로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규빈이는 발표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낱말 중심으로 찾아본다고 하였습니다.
- 17 훑어 읽기의 방법으로 글을 읽을 때에는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며 읽습니다.
- 18 글 4에서는 고려청자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19 고려청자는 맑고 은은한 비색으로 유려한 곡선을 강조하며 상감 기법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표현하였습니다. 중국의 청자를 받아들이면서 모방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의 아름다움을 일궈 낸 고려인들의 노력과 열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 20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을 찾으며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 21 자세히 읽기의 방법으로 글을 읽을 때에는 우선 읽는 목적을 생각하고, 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며 읽습니다. 또 설명하는 내용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생각하며 필요한 정보에 집중하며 읽습니다.

**채점 기준**

‘글을 읽는 목적을 생각한다.’ ‘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며 읽는다.’ 등과 같이 제시한 내용과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도록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서술형 수행 평가 돋보기**

1 예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

2 예

근거	근거의 적절성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하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이다.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하다.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람이다.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하다.

3 예 미래에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인공 지능이나 로봇의 발달로 사람들의 교류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럴 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태도는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1 제시된 글에는 미래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글쓴이의 의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글쓴이는 미래에는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2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봅니다.
- 3 미래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바르게 제시하여 씁니다.

**채점 기준**

상	미래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의견에 대한 근거를 알맞게 제시하여 썼으면 만점입니다.
중	미래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썼지만, 근거가 적절하지 못합니다.
하	미래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근거도 쓰지 못합니다.

01 (1) ○ 02 ① 03 민서 04 ② 05 ㉠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 설명하는 대상의 무엇을 설명하는지 생각한다. / 대상에 대해 이미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을 찾는다. 등 06 ② 07 (1) (가) (2) (나), (다), (라) (3) (마) 08 재성 09 ㉡ 10 ①

- 01 지윤이는 ‘우주의 신비’라는 제목을 보고 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 02 궁금한 것이 있거나 책의 제목을 보고 관심이 생길 때, 친구가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 주거나 어떤 물건의 설명서를 읽을 때에는 글을 찾아 읽게 됩니다.
  - 03 민서는 친환경 에너지가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책을 읽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4 돌의 종류를 조사하는 숙제를 하기 위해 찾아볼 수 있는 자료에는 돌을 설명한 책, 인터넷에서 돌을 설명한 내용, 돌의 사진, 과학관 안내 책자에서 돌을 설명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 05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무엇을 설명하는지, 설명하는 대상의 무엇을 설명하는지, 이미 알던 내용은 무엇인지, 새롭게 안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며 읽어야 합니다.
- 채점 기준**
-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설명하는 대상의 무엇을 설명하는지 생각한다.’, ‘대상에 대해 이미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을 찾는다.’ 등과 같이 제시한 내용과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도록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06 이와 같은 글은 주장하는 글입니다. 주장하는 글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있습니다.
  - 07 주장하는 글에서 (가)는 처음, (나), (다), (라)는 가운데, (마)는 끝에 해당합니다.
  - 08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찾고 그것이 옳은지 생각해 봅니다. 또 자신의 생각과 비

교해 비판하는 태도로 읽어야 합니다.

- 09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글에 있는지 찾아볼 때에는 글 전체의 내용을 훑어 읽으면서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10 글을 자세히 읽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그으며 읽고, 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며 읽습니다. 설명하는 내용이 틀린 부분은 없는지 생각하며 자신이 아는 내용과 새롭게 안 내용을 비교해 봅니다.





## 교과서 내용 학습

160~163쪽

01 ㉠ - ㉡ - ㉢ 02 ㉡ 03 ㉠ 04 (1) ○ (3) ○ 05  
 '나'(상은), 인국 06 ㉠ 07 ㉠ 08 예 읽는 사람을 생각하  
 여 쓴다. /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일을 쓴다. 등 09 ㉠  
 10 ㉠ 11 (2) ○ 12 재신 13 ㉢ 14 ㉠ 15 주제 16  
 ㉠ → ㉡ → ㉢ → ㉠ 17 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재미있  
 게 쓰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위해서 18 ㉢

- 01 비가 와서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하게 되었고, 체육 시간에 간이 축구를 하다가 진주와 성훈이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진주, 성훈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02 선생님께서는 진주랑 성훈이가 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 03 제시된 그림을 통해 등장인물이나 진주와 성훈이에게 일어난 일은 알 수 있지만 진주가 성훈이랑 같은 편이 되기 싫어하는 까닭은 알 수 없습니다.
- 04 진주의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주와 성훈이가 사이가 안 좋은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쓰고,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합니다.
- 05 글 1의 등장인물은 '나'(상은)와 인국이입니다.
- 06 글 1은 '나'와 인국이가 교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 07 글 1은 이야기의 흐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배경과 인물을 설명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 08 이야기는 여러 사람이 읽는 글이므로 읽는 사람을 생각하여 씁니다. 또 일기는 하루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을 쓰지만 이야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있었던 일을 씁니다.

## 채점 기준

'읽는 사람을 생각하여 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일을 쓴다.' 등과 같이 제시한 내용과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도록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09 '나'(상은이)와 인국이가 싸우는 부분은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 10 ㉠의 속마음을 통해 '나'는 인국을 좋아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11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 12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할 때에는 필요하다면 사건을 지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 13 남자아이는 경험을 이야기로 쓰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 14 학교 체육대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로 쓰는 것으로 배경이 되는 곳은 학교가 적당합니다.
- 15 주제는 글쓴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으로, 경험을 이야기로 쓸 때에는 글의 주제가 잘 나타나야 합니다.
- 16 경험을 이야기로 쓸 때에는 먼저 어떻게 쓸지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쓸 내용을 정하고, 이야기의 개요를 짠 후, 글을 씁니다. 글을 다 쓴 후에는 평가하고 고쳐 쓰기를 해야 합니다.
- 17 경험을 이야기로 쓰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재미있게 쓰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 채점 기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재미있게 쓴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등과 같이 제시한 내용과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도록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18 경험을 이야기로 쓸 때에는 글의 짜임이 잘 나타나게 쓰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씁니다. 또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고, 읽는 사람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제목을 붙입니다.

## 단원 확인 평가

167~1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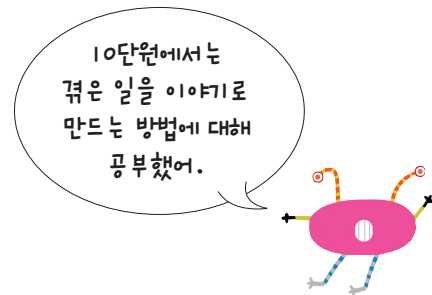
01 ㉠ 02 ⑤ 03 ⑤ 04 (1) - ② (2) - ③ (3) - ① 05  
③ 06 ⑤ 07 ② 08 글 (나) 09 예 '나'와 인국이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오해를 풀고, 친해진다는 내용 10 차례, 사  
건, 이해

- 01 이야기로 만들기에 좋은 기억은 친구들이 흥미를 보일 수 있는 이야기, 자신이 잘 아는 이야기, 시간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 02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로 표현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쓸 수 있으므로 좀 더 솔직하게 쓸 수 있습니다.
- 03 ⑤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04 2교시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체육 수업을 체육관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체육은 체육관에서 했고, 체육 시간 후 3교시 상담실에서 진주와 성훈이는 선생님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 05 이 일을 이야기로 만들 때에는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쓰고, 진주와 성훈이가 사이가 안 좋은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씁니다. 또 인물의 마음이 잘 나타나도록 쓰고, 글쓴이가 나타내고자 한 생각이 잘 나타나도록 쓰면 좋습니다.
- 06 글 (가)는 이야기의 흐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배경과 인물을 설명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 07 글 (나)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은 '나'와 인국이가 체육을 하다가 싸우게 된 것입니다.
- 08 글 (나)는 글 (가)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 09 이야기의 마지막은 사건을 해결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이므로 갈등을 겪은 '나'와 인국이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오해를 풀고 친해진다는 내용으로 하면 좋을 것입니다.

### 채점 기준

사건을 해결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 알맞은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10 제시된 이야기에는 일어난 일의 차례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건을 지어낼 수 있고, 읽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물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1  
단원

꼭지 시험

13쪽

01 (3) ○ 02 표정, 말투 03 칭찬 04 (3) ○ 05 (1) 결과  
보다 과정 (2) 설명하는 06 조언 07 (1) 예 도움 (2) 예 강  
요 (3) 예 편안하게 08 (2) ○ 09 공감 10 (2) ○

14~15쪽

학교 시험 **만점왕**

1. 대화와 공감

01 (1) ○ 02 (1) - ① (2) - ② 03 ③ 04 ⑤ 05 예 그  
래, 다음부터는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걱정했잖아. 06 ② 07 ①, ③ 08 예 "속상  
하겠구나.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너무 부끄러워서 직접 말을  
못하고 쪽지를 써서 미안한 마음을 전했더니 친구가 나를 보  
고 웃어 주어서 화해하게 되었어. 너도 한번 그 방법을 써  
봐." 09 ④ 10 (3) ○

01 태일이처럼 상대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다시 물어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대화의 특성

- 상대를 직접 보면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 잘 듣지 않으면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 표정, 몸짓, 말투에 따라 기분이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의 마음을 살피며 말해야 합니다.

02 글 (가)는 칭찬의 힘, 칭찬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  
고, 글 (나)는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03 칭찬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04 글 (나)에서는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하는 것이  
좋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칭찬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합니다.
-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합니다.

-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 가능성을 키워 주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05 소희는 은주의 상황을 이해해 주며, 앞으로는 약속을  
잘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점 기준

은주의 상황을 이해해 주며 하고 싶은 말을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06 정인이는 체육 시간에 뒤 구르기가 잘 안돼서 모뎀끼리  
여러 가지 동작을 꾸밀 때 방해가 되는 것 같아 걱정하  
고 있습니다.

07 동욱이는 정인이에게 고민을 말하라고 강요했고, 도움  
이 되지 않는 해결 방법도 강요하였습니다.

더 알아보기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는 방법

- 상대에게 고민을 말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 상대가 고민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잘 듣습니다.
-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 상대에게 진심이 전해지도록 노력합니다.

08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진심이 담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점 기준

상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심이 전해지도록 썼  
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09 민재와 주민이는 주민이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  
습니다.

10 민재와 주민이는 서로의 말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누  
고 있어 대화가 즐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 01 유관순 02 아우내 장터 03 (2) ○ 04 (1) 쉽게 (2) 생  
 생 (3) 마음 05 출렁출렁 06 우리 집 07 (2) ○  
 08 (1) ○ 09 꽃 10 (2) ○

18~19쪽

학교 시험 **만점왕**

## 2. 작품을 감상해요

- 01 ②, ⑤ 02 감옥, 열아홉 03 서우, 지원 04 예 일제 강  
 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사람들이 독립 운동을 하며 죽  
 거나 다치던 모습이 생각났다. 05 ① 06 (1) 2 (2) 3 (3) 1  
 07 ④ 08 ③ 09 ① 10 (1) 예 나비가 얼굴을 내밀었다  
 (2) 예 내가 먼저 본 줄 알았지만 / 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목  
 에서 / 나와 함께 놀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

- 01 유관순은 방학 때 고향으로 내려가 우리글을 모르는 마  
 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글을 가르쳤고, 3·1 운동 뒤 일  
 본이 강제로 학교를 닫자 고향으로 돌아와 독립 만세를  
 부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 02 독립 만세를 부르던 유관순은 꽃다운 열아홉 나이에 감  
 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 03 우리는 유관순으로부터 일본의 횡방에도 굴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글을 가르친 끈기함과 나라를 지  
 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 만세를 부른 애국심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 04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본 경험,  
 유관순에 대한 전기문을 읽은 경험, 서대문형무소를 견  
 학했던 경험 등을 떠올려 봅시다.

**채점 기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일들, 유관순과 관련한 내용 등 글의 내  
 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렸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05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을 읽으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생생하고 실감 나게 읽을 수 있으며, 인물  
 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06 1연에서는 학교에 지각할 뻔한 경험이, 2연에서는 춤고  
 배가 고팠던 경험이, 3연에서는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한  
 경험이 나타나 있습니다.
- 07 길을 잡아당기면 출렁출렁 원하는 것이 앞으로 온다고  
 상상하였습니다.
- 08 시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릴 때는 먼저 시의 내용을 파  
 악하고, 시의 표현을 살펴보고, 시에서 말하는 이가 상  
 상한 것을 짐작하고, 시에서 말하는 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파악합니다.
- 09 2연의 '봄이 쫓아가던 길목에서'란 표현으로 보아 시의  
 배경이 되는 계절은 봄임을 알 수 있습니다.
- 10 시의 말하는 이처럼 꽃을 본 경험, 다른 자연을 관찰한  
 경험, 어떤 인물이나 사물에게 미안했던 경험 등을 떠올려 시의 표현을 바꾸어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시의 표현을 어울리게 바꾸어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3  
단원

### 꼭지 시험

21쪽

- 01 다보탑과 석가탑 02 공통점 03 비교와 대조 04 (3)  
 ○ 05 ㉠ 06 예 어류의 여러 기관 07 산소 08 (1) ○  
 09 ㉠ 10 (2) ○

22~23쪽

#### 학교 시험 만점왕

#### 3. 글을 요약해요

- 01 ①, ② 02 ⑤ 03 ② 04 (1) 비교와 대조 (2) 차이점  
 05 ㉠ 06 (2) ○ 07 ① 08 근호 09 예 세계 여러 도시  
 에 있는 유명한 탑을 알아봅시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는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에펠 탑이 있습니  
 다. 10 (1) 구조 (2) 틀

- 01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잘 모르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일의 방법이나 차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것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02 ‘다보탑과 석가탑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03 다보탑은 통일신라 시대에 만든 석탑으로 장식이 많고 화려합니다. ④, ⑤는 석가탑에 대한 설명입니다.
- 04 이 글은 다보탑과 석가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을 ‘비교와 대조’라고 합니다.
- 05 비교와 대조로 내용을 정리할 때에 어울리는 틀은 ㉠입니다. ㉡의 틀은 열거의 방식으로 정리할 때 어울리는 틀입니다.
- 06 (나)와 (다)에서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과 프랑스 에펠 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서는 세계의 여러 가지 탑을 소개하겠다는 내용이 중심 문장이 됩니다.
- 07 ‘피사의 사탑은 종교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08 이 글에서는 세계 여러 도시에 있는 유명한 탑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하는 ‘열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09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중심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 채점 기준

각 문단에서 중심 내용을 찾아 적절하게 연결하여 글의 내용을 요약하였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10 글의 내용을 요약할 때는 어떤 구조를 활용해 내용을 설명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지우고, 세부 내용은 대표적인 말로 바꾸어 중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글의 구조에 알맞게 틀을 그리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 01 주어 02 서술어 03 꽃이, 피었습니다 04 ㉠ 05 예  
나는 어제 빵을 먹었다. / 나는 내일 빵을 먹겠다. 06 ㉠ →  
㉠ → ㉠ 07 달걀말이 08 예 우리 반 친구들 09 (1) ○  
10 (2) ○

26~27쪽

학교 시험 **만점왕**

## 4. 글쓰기의 과정

- 01 (2) ○ 02 ㉠ 03 달걀말이를 04 ㉠ 05 (1) 예 <보기>  
의 문장이 어색한 까닭은 선수가 무엇을 잡았는지 알기 어렵  
기 때문이다. / 문장에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다. (2) 예 선  
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06 시간 07 예 아빠께서 나를 깨우  
심. / 아빠께서 말씀하심. 08 ㉡, ㉢ 09 ㉡

- 01 **㉠**는 글을 쓰기 전에 쓸 내용을 힘들었던 일, 신기했던  
일, 즐거웠던 일로 나누어 떠올린 것입니다.
- 02 **㉠**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낸 것으로 **㉠**의 쓸 내용  
을 떠올린 것 중 '즐거웠던 일'에 대해 쓴 글입니다.
- 03 '나는 달걀말이를 정말 좋아한다.'에서 주어는 '나는'이  
고, 목적어는 '달걀말이를', 서술어는 '좋아한다'입니다.  
'정말'은 서술어를 자세하게 꾸며 주는 말입니다.
- 04 주어와 서술어로만 구성된 문장은 ㉠입니다.

**더 알아보기**

- ① 이것은 새입니다.  
주어 서술어
- ②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 ③ 아이가 공을 던집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 ④ 나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 ⑤ 나는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 05 선수가 무엇을 잡았는지 설명하지 않아서 문장이 어색하  
게 느껴지므로 문장에 목적어를 넣어 완성해야 합니다.

**채점 기준**

목적어가 빠져 있어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고,  
문장을 바르게 고쳐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06 '~할 것이다'는 있었던 일을 설명할 때 어울리지 않는  
서술어입니다. '나를 깨우실 것이다.'를 '나를 깨우셨  
다.'로 바꿔야 알맞은 호응 관계가 됩니다.
- 07 '내'가 툭툭거린 까닭은 더 자고 싶은데 아빠께서 아침  
운동을 하자며 아침 일찍 '나'를 깨우셨기 때문입니다.
- 08 '아빠와 함께 아침 운동을 하니 기분이 참 상쾌했다.'에  
서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은 상쾌하고 기분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 09 ㉡는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이'가 동작을 당하는 주어이기  
때문에 '업었다'가 아닌 '업혔다'로 고쳐 써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 문장에 쓰인 호응 관계의 종류

- ① 내일 도서관에 갈 거야.  
→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 ③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④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났어.  
→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 ⑤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신다.  
→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 01 다리 02 다의어 03 (2) ○ 04 ㉠ 05 위험 06 인공 지능  
07 설득력 08 쓰기 윤리 09 (1) × (2) ○  
10 예 쓰기 윤리를 지키자.

30~31쪽

학교 시험 **만점왕**

5. 글쓴이의 주장

01 (2) ○ 02 ③ 03 ⑤ 04 ④ 05 ④ 06 예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확인해 보고, 글쓴이가 여러 번 강조해 사용한 낱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본다. 07 예 인공 지능이 일으킬 위험을 알고 그를 막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08 ② 09 (2) ○ 10 예 인공 지능 개발에 따른 위험, 글쓴이는 인공 지능으로 인해 불평등이 심해지고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 지능의 어두운 면을 보여 주는 제목이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 01 준호는 태빈이의 말을 듣고, 태빈이 동생의 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 02 ‘다리’라는 낱말을 준호는 ‘사람의 다리’로, 태빈이는 ‘안경다리’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낱말의 형태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 03 태빈이가 생각한 ‘다리’는 ‘안경다리’입니다. 보기 ①번과 ③번은 ‘사람의 다리’, ②번과 ④번은 ‘물을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다리’를 뜻합니다.
- 04 글쓴이는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05 도로(길, 그대로), 사고(불행한 일, 생각하고 궁리함), 우리(짐승을 기르는 곳,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 일어나다(잠에서 깨다, 어떤 일이 생기다)는 모두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입니다.

- 06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확인하며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보거나, 자주 사용하거나 반복하여 사용하는 낱말이 무엇인지 확인해 봅니다.

**채점 기준**

해설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알맞게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07 이 글에서는 ‘인공 지능, 위험, 지배’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인공 지능이 가져 올 미래의 편리함보다는 인공 지능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 08 글쓴이는 인공 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으므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의 부정적인 측면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②번은 인공 지능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 09 ①은 형태는 같지만 뜻이 서로 다른 동형어입니다.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10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살펴보고, 글쓴이의 주장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여 봅니다.

**채점 기준**

인공 지능 개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제목을 붙이고, 제목을 붙인 까닭을 적절하게 설명했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01 의견 모으기 02 (2)○ (3)○ 03 (1) 존중 (2) 까닭 (3) 주제 04 (1)○ (2)○ 05 기행문 06 (1) 경험 (2) 기본 (3) 정보 07 (1) 여정 (2) 견문 (3) 감상 08 ㉠

34~35쪽

학교 시험 **만점왕** 6. 토의하여 해결해요~7. 기행문을 써요

01 ⑤ 02 ㉠ → ㉡ → ㉢ → ㉣ 03 ④ 04 ㉡ 개교기념일은 학교에 오지 않고, 학교의 역사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개교기념일을 맞아 편히 쉬면서 학교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학교에 대한 애정도 더 솟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05 ③, ⑤ 06 제주도 07 ④ 08 기행문 09 (1) - ① (2) - ③ (3) - ② 10 (1) ㉠ (2) ㉡ (3) ㉢

- 01 토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문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결정된 내용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02 토의는 '토의 주제 정하기 → 의견 마련하기 → 의견 모으기 → 의견 결정하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03 마루는 1에서 주장에 알맞은 까닭을 들지 않았고, 2와 3에서는 손을 들고 말할 기회를 얻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반말로 이야기했으며,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친구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 04 1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반말로, 알맞은 까닭을 들지 않고 말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근거를 들어 높임말을 써서 말하는 것으로 고쳐 씁니다.

**채점 기준**

높임말을 사용하여 알맞은 근거를 들어 의견을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05 토의의 마지막 단계는 '의견 결정하기'입니다. 의견 결정하기 단계에서는 토의 주제에 맞는 의견,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든 의견, 실천할 수 있는 의견을 결정합니다.

- 06 서윤이는 작년 방학 때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 07 서윤이는 여행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글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여행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 08 여정을 적고, 여행으로 얻은 견문과 감상을 쓴 글을 기행문이라고 합니다.
- 09 여정은 '~에 갔다, ~간 곳은 ~이다' 등의 표현과 같이 주로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쓰입니다. 견문은 '~를 보았다, ~라고 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보고 들은 것을 나타냅니다. 감상은 '~라고 생각한다, ~처럼 느껴졌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여행하며 든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냅니다.
- 10 기행문의 처음 부분에는 여행한 까닭이나 목적, 여행을 앞둔 기대감 등을 쓰고, 가운데 부분에는 여행지에서 다닌 곳, 보고 들은 것, 생각하거나 느낀 것과 같이 여행하면서 있었던 일을 씁니다. 기행문의 끝부분에는 여행의 전체 감상을 씁니다.

- 01 사과, 나무 02 햇밤 03 햇- 04 뛰어놀다 / 뛰놀다  
05 예 길 06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중 2개 이상 07  
올림통 08 (1) ○ 09 내비게이션 10 크레파스

38~39쪽

학교 시험 **만점왕**

8.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

- 01 (1) 오이, 복숭아, 사과 (2) 애호박, 눈사람 02 ③ 03  
③ 04 ⑤ 05 ④ 06 ③ 07 ④ 08 ⑤ 09 예 글의 내  
용에 더 흥미를 가진다. / 글의 내용을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등 10 (1) - ② (2) - ③ (3) - ①

- 01 단일어는 낱말을 나누면 본디의 뜻이 없어져 더는 나눌 수 없는 낱말이고, 복합어는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친 낱말과 뜻을 더해 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을 합친 낱말을 말합니다.
- 02 ‘국밥’은 ‘국’과 ‘밥’을, ‘검불다’는 ‘검다’와 ‘붙다’를, ‘소금물’은 ‘소금’과 ‘물’을, ‘사과나무’는 ‘사과’와 ‘나무’를 합해서 만든 낱말입니다.
- 03 ‘재주꾼’은 ‘재주’와 ‘-꾼’을 합쳐 만든 낱말로, ‘-꾼’이 낱말에 붙으면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혹은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 04 ‘애-’는 ‘어린’ 또는 ‘작은’이라는 뜻으로 ‘애호박’은 ‘덜 여문 어린 호박’을 뜻합니다.
- 05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눈’입니다.
- 06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은 명주실을 이용해 만든 악기이고, 생황은 박으로 만든 악기입니다.
- 07 명주실은 잘 끊어지지 않고 탄력이 있어서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같은 악기의 줄로 쓰인다고 하였습니다.
- 08 소리, 길이, 그릇, 바가지는 쪼갤 수 없는 하나의 낱말로 이루어져 있지만, ‘명주실’은 ‘명주’와 ‘실’을 합해서 만든 낱말입니다.

09 글을 읽을 때 겪은 일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글의 내용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아는 내용과 비교하며 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채점 기준**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한다.’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 등과 같이 제시한 내용과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도록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10 ‘짜꿍’은 ‘옆자리 친구’, ‘튜브’는 ‘바람 주머니’, ‘주스’는 ‘과일즙’이 새말로 만들 때 어울립니다.

01 돌을 설명한 책 02 설명하는 글 03 주장하는 글 04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05 주장, 근거 06 민영 07 ㉠ 08 읽는 사람 09 주제 10 흥미

42~43쪽

### 학교 시험 **만점왕** 9.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10. 주인공이 되어

01 ⑤ 02 ㉠ 03 ③ 04 ⑤ 05 (1)○ (3)○ 06 체육관 07 ① 08 건영 09 ⑤ 10 ㉠ 읽는 사람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경험을 쓴다. /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쓴다. /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쓴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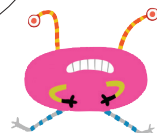
- 01 이 글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글쓴이가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02 글쓴이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 03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고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습니다.
- 04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알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기보다 제목으로 내용을 짐작하거나 관심 있는 내용이 있는지 훑어 읽어야 합니다.
- 05 글을 자세히 읽을 때에는 필요한 내용을 찾으며 자세히 읽고, 중요한 내용이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에 밑줄을 그으며 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안 내용과 새롭게 안 내용을 비교하며 자세히 읽습니다.
- 06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체육 수업을 체육관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3교시 체육은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 후 상담실에서 진주와 성훈이는 선생님과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 07 진주는 성훈이와 다른 편이 되기를 바라는 태도로 보아 진주는 성훈이를 싫어한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 08 이 일을 이야기로 만들 때에는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쓰고, 진주와 성훈이가 사이가 안 좋은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씁니다. 또 인물의 마음이 잘 나타나도록 쓰고, 글쓴이가 나타내고자 한 생각이 잘 나타나도록 쓰면 좋습니다.
- 09 글 (가)는 '나'와 인국이가 서로 다투는 부분이므로 등장 인물의 갈등이 꼭대기에 이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0 겪은 일을 이야기로 나타낼 때에는 읽는 사람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경험을 씁니다. 또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쓰고,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씁니다.

#### 채점 기준

'관심', '이해', '경험' 등을 넣어서 제시한 내용과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도록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5학년 1학기  
국어 공부를 잘 마쳤구나.  
2학기 때 다시  
만나자!





# 메모





# 메모







# 메모

